1st quarter of 2021
thebell league table

- Equity Capital Markets
- Debt Capital Markets
- Korean Paper
- Mergers & Acquisitions
- Fees

Equity Capital Markets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기업공개(IPO),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BW, CB , EB 등) 발행, 블록딜(Block Deal)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 공모 거래와 사모 거래,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 기업공개(IPO)는 국내 증시에 최초로 상장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상장과 분할 재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상장 및 해외시장 기업공개(IPO)는 제외한다.
-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ELB)은 거래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블록딜(Block Deal)은 건당 500억원 이상의 거래로 제한한다.
- 블록딜(Block Deal)은 불특정 다수의 기관투자가에게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를 뜻한다.
-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RO), 주식연계증권(ELB)은 납입일을 기준으로, 블록딜(Block Deal)은 거래 실행일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주관사의 주관 실적, 인수사의 인수 실적, 모집주선사의 모집주선 실적을 각각 집계해 발표한다. 블록딜(Block Deal) 거래실적은 별도 집계 · 발표한다.
- 주관 실적, 인수 실적, 모집주선 실적은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 주관 실적, 인수 실적, 모집주선 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외화표시 주식연계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신고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
- 주관 실적은 대표 주관사(공동 주관사 제외) 별로 집계한다. 대표 주관사가 복수인 경우 총 거래금액을 비례 안분한다. 다만 기업공개(IPO) 거래에 대해서는 공동 주관사의 실적을 인정하되, 인수 금액으로 한다.
- 모집주선 실적은 공모거래에 한해 집계한다. 모집주선 실적은 주선사 수에 따라 균등 배분한다.
- 부분잔액인수(주관사가 총 발행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수 책임)의 경우 대표 주관사의 주관실적은 인수 책임금액으로 한다.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금액은 모집주선 실적에 반영한다.
- 부분잔액인수의 대표 주관사가 복수일 경우 주관실적은 각 대표 주관사가 인수한 금액과 타 인수단의 인수금액을 균등 배분한 금액의 합계로 한다.
- 수수료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모거래의 수수료는 집계하지 않는다.
- 주관 실적에 대해서는 수취한 수수료를 반영한 조정 리그테이블을 시범적으로 발표한다.

Overview

주식자본시장(ECM)은 2021년 1분기 새로운 역사를 썼음. 17조원이 넘는 분기 거래액을 기록. 리그테이블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 유상증자((Rights Offering, RO)와 IPO(기업공개) 모두 역대급 기록을 쓴 덕분.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로 증시와 ECM으로 유동성이 몰린 영향인데 2021년 들어 흐름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 2021년 1분기는 서막일 수 있음. 조단위 IPO 공모가 2~4분기 쉴 새 없이 쏟아짐.

다만 암초도 있음. 2021년 들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 공급(발행사)은 풍성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가격조건에 따라 옥석가리기에 나설 수 있음.

◇전년 동기 대비 10조 폭증…유증 11조, IPO 2.8조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유상증자와 IPO, 주식연계증권(ELB) 딜을 합산한 ECM 거래액은 17조2873억원으로 집계. 2020년 1분기 6조5293억원에 비해 164.8%(8조569억원) 폭증한 수치.

2010년 리그테이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 분기 거래액. 직전 최대치는 2020년 4분기로 15조2620억원이었음. 2021년 1분기는 직전분기보다도 13.3% 늘었음. 역대 1분기와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 최근 5년(16년~20년) 1분기 평균 거래액은 8조6035억원. 2021년 1분기의 절반에 그침.

유상증자 시장이 신기록을 쓴 덕분. 유상증자 거래액은 2021년 1분기 11조6603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899억원)에 비해 143.4% 늘었음. 직전 최대치는 2018년 1분기로 10조107억원이었음. 2020년 4분기 유상증자 거래액은 9조7586억원.

IPO 거래액도 폭증. 2021년 1분기 2조8553억원으로 전년 동기(2267억원)에 비해 1159.5% 늘었음. 2020년 4분기(2조2808억원)에 비해서도 25.2% 증가. 역대 최대 분기기록은 최대어 삼성생명이 상장한 2010년 2분기(5조8671억원).

ELB 시장도 크게 불었음. 2021년 1분기 2조77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5127억원) 대비 83.2% 증가. 다만 직전인 2020년 4분기(3조2225억원)에 비해선 14% 줄었음.

◇풍부한 유동성 확인, 조단위 유증·IPO 빅딜 봇물

2020년 풍부한 유동성을 확인한 발행사들이 2021년 들어 공격적으로 빅딜을 쏟아낸 덕분. 증시도 도와줬음. 2020년 말 2800대였던 코스피지수가 2021년 초 3000선을 돌파.

유상증자 시장에선 역대 최대 빅딜이 등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 2021년 3월 3조3159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 구주주 청약 경쟁률이 104.85%였음. 초과청약이 이뤄질 정도로 흥행.

조 단위 빅딜이 두 개 더 있었음. 한화솔루션이 그린수소 사업 투자 대금마련을 위해 2021년 3월 1조346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 포스코케미칼은 2021년 1월 2차전지 소재 시설 투자용으로 1조2735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했음. 이외에도 씨에스윈드(4670억원)와 롯데리츠(3333억원) 등 평년 같으면 대어로 취급 받을 유상증자도 있었음.

IPO시장에선 오랜만에 조단위 공모가 나왔음.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1년 3월 1조4917억원 규모 공모를 했음. 2017년 7월 셀트리온헬스케어(1조87억원 공모) 이후 3년여 만에 처음 나온 조단위 공모.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역사상 가장 흥행한 조단위 IPO였음. 기관수요예측 경쟁률이 1275대 1이었음. 조단위 빅딜 중 가장 높았음. 일반 청약 증거금도 63조원이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

1분기엔 바이오대어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도 4909억원 공모에 성공. 기관수요예측에서 역시 우수한 경쟁률(819.76대 1)을 기록.

◇1분기는 서막…조단위 IPO 즐비, LGES만 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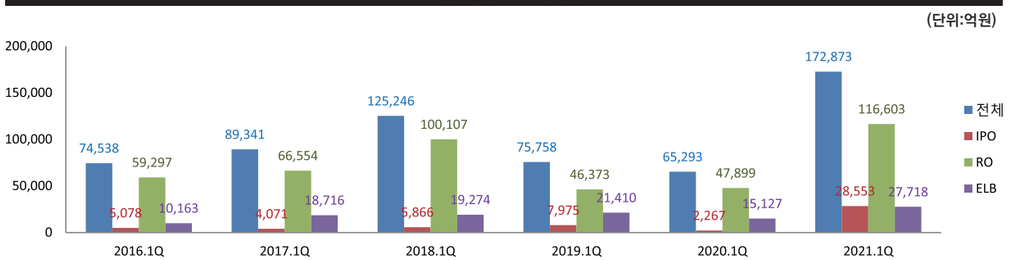
2021년 2~4분기는 거래액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대기 중인 빅딜이 즐비. 조단위 IPO만 6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2021년 4월 공모를 준비함. 할인 후 밸류에이션(기업가치)만 8조원, 공모액은 2조원 내외로 예상. 국내 최대 진단키트 업체로 평가받는 SD바이오센서도 2분기 공모를 준비 중인데 공모액이 최소 1조원. SKIET와 SD바이오센서 두 개 빅딜만으로 2분기 공모액이 1분기(2조8553억원)를 넘어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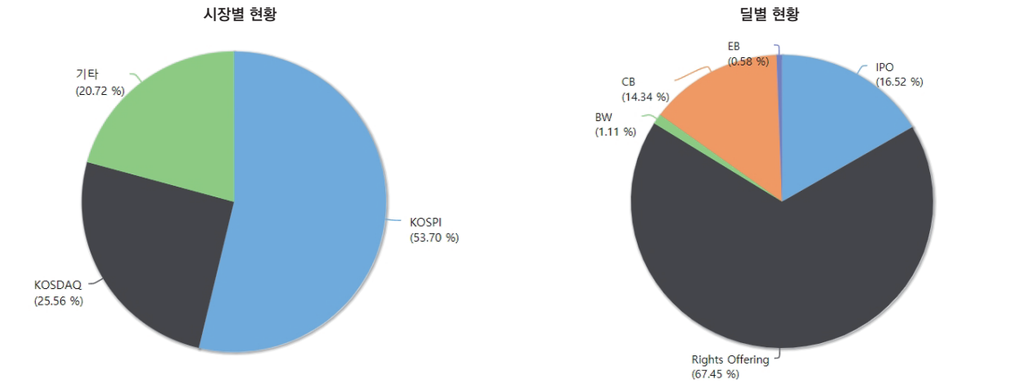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게임 최대어 크래프톤(약 5조원 공모)과 카카오페이(약 2조원), 카카오뱅크(약 4조원)가 IPO에 나설 예정. 무엇보다 역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LGES)이 연내 입성을 노리고 있음. LGES는 밸류가 50조~70조원, 공모액은 10조~15조원으로 거론.

유상증자 빅딜 출현도 지속될 수 있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계획을 사전에 밝히지 않는 특징이 있어 규

역대 1분기 ECM 거래액



2021년 1분기 ECM 시장별, 딜별 비중



모 예측은 어려움.

다만 변수도 있음. 이는 공급 측면에서 예상되는 호황. 수요는 변동성이 커졌음. 2021년 경기회복 기대감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탓. 국채(안전자산)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위험자산)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게 마련.

이에 2020년 초까지 이어진 증시 상승 모멘텀이 2분기부턴 꺾일 것으로 투자은행(IB)업계는 판단. 증시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ECM 수요도 변동성이 커졌음. 발행사들이 시장 눈높이에 맞는 가격을 제시해야만 딜이 성공할 것이란 관측.

한 초대형IB ECM본부장은 "2020년 증시상승은 기업 펀더멘털이 아닌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며 "2021년엔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리스크 탓에 상승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말함.

이어 "발행사 대기물량은 전무후무한 규모지만 수요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진 것"라며 "발행사들이 2020년을 생각하고 비싼 몸값을 희망했다간 투심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개별종목별 투심도 상이해 질 것"이라고 덧붙임.

2021년 1분기 ECM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NH투자증권	2,015,920	5	20.45	1,382,473
2	KB증권	1,880,654	9	19.08	2,415,703
3	한국투자증권	1,711,136	11	17.36	1,508,071
4	미래에셋증권	1,058,870	13	10.74	1,303,322
5	삼성증권	846,814	4	8.59	782,103
6	유진투자증권	596,814	3	6.06	568,144
7	키움증권	542,540	4	5.50	481,493
8	DB금융투자	499,350	3	5.07	260,901
9	대신증권	333,268	4	3.38	412,102
10	노무라	111,115	1	1.13	179,489
11	하나금융투자	89,394	4	0.91	247,366
12	신한금융투자	62,461	4	0.63	102,418
13	유안타증권	39,842	2	0.40	86,826
14	신영증권	38,643	1	0.39	64,256
15	IBK투자증권	29,150	2	0.30	61,303
총합계		9,855,971	70	100.00	9,855,971

* ECM 거래(IPO, 유상증자, ELB)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1년 1분기 ECM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1,818,153	11	18.45
2	NH투자증권	1,692,837	5	17.18
3	한국투자증권	1,558,813	11	15.82
4	미래에셋증권	1,033,256	13	10.48
5	삼성증권	744,100	7	7.55
6	키움증권	466,746	4	4.74
7	유진투자증권	403,381	4	4.09
8	대신증권	333,268	4	3.38
9	SK증권	318,298	2	3.23
10	DB금융투자	290,918	3	2.95
11	신한금융투자	263,529	5	2.67
12	IBK투자증권	228,108	3	2.31
13	하나금융투자	208,624	6	2.12
14	하이투자증권	132,639	1	1.35
15	신영증권	107,483	3	1.09
16	유안타증권	106,161	3	1.08
17	노무라	83,336	1	0.85
18	한화투자증권	66,319	1	0.67
총합계		9,855,971	87	100.00

* ECM 딜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ECM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대신증권	97,448	1	55.55
2	한국투자증권	63,349	2	36.11
3	유진투자증권	14,642	1	8.35
총합계		175,439	4	100.00

* 인수 금액 제외,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모집주선실적은 없고 수수료만 받은 주관사는 기재하지 않음.

2021년 1분기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NH투자증권	820,463	1	28.73	204,486
2	미래에셋증권	653,891	10	22.90	818,928
3	한국투자증권	432,587	7	15.15	298,563
4	삼성증권	373,104	3	13.07	572,033
5	KB증권	188,080	2	6.59	93,957
6	하나금융투자	89,394	4	3.13	247,366
7	키움증권	68,830	3	2.41	166,386
8	대신증권	64,050	3	2.24	154,383
9	유안타증권	39,842	2	1.40	86,826
10	신영증권	38,643	1	1.35	64,256
11	신한금융투자	31,607	3	1.11	35,963
12	IBK투자증권	29,150	2	1.02	61,303
13	DB금융투자	25,640	2	0.90	50,831
총합계		2,855,280	43	100.00	2,855,280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1년 1분기 기업공개(IPO)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미래에셋증권	656,056	10	22.98
2	NH투자증권	551,948	1	19.33
3	삼성증권	451,021	5	15.80
4	한국투자증권	426,287	7	14.93
5	하나금융투자	180,857	5	6.33
6	KB증권	167,380	3	5.86
7	SK증권	119,340	1	4.18
8	키움증권	68,830	3	2.41
9	대신증권	64,050	3	2.24
10	신영증권	41,163	2	1.44
11	유안타증권	39,842	2	1.40
12	신한금융투자	33,718	3	1.18
13	IBK투자증권	29,150	2	1.02
14	DB금융투자	25,640	2	0.90
총합계		2,855,280	49	100.00

* 기업공개(IPO)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기업공개(IPO) 공동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343,103	1	39.30
2	미래에셋증권	328,185	1	37.59
3	KB증권	147,280	1	16.87
4	유안타증권	27,342	1	3.13
5	하나금융투자	14,144	1	1.62
6	신한금융투자	13,056	1	1.50
총합계		873,109	6	100.00

[참고] 2021년 1분기기업별기업공개(IPO)규모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 (백만원)	대표주관사	점유율 (%)
1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1,491,750	NH투자증권	52.25
2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490,932	삼성증권	17.19
3	네오이뮨텍	112,500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3.94
4	솔루엠	108,800	미래에셋증권, KB증권	3.81
5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91,140	미래에셋증권	3.19
6	씨앤투스성진	51,200	미래에셋증권	1.79
7	엔시스	43,700	미래에셋증권	1.53
8	오로스테크놀로지	39,900	키움증권	1.40
9	유일에너테크	38,643	신영증권	1.35
10	뷰노	37,800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1.32
11	바이오다인	30,000	대신증권	1.05
12	레인보우로보틱스	26,500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0.93
13	모비릭스	25,200	한국투자증권	0.88
14	씨이랩	22,750	IBK투자증권	0.80
15	아이퀘스트	22,000	미래에셋증권	0.77
16	선진뷰티사이언스	21,103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0.74
17	핑거	20,800	대신증권	0.73
18	제노코	17,640	DB금융투자	0.62
19	와이더플래닛	16,000	한국투자증권	0.56
20	나노씨엠에스	16,000	키움증권	0.56
21	엔비티	15,808	미래에셋증권	0.55
22	자이언트스텝	15,400	한국투자증권	0.54
23	싸이버원	12,930	키움증권	0.45
24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12,500	유안타증권	0.44
25	라이프시맨틱스	12,500	한국투자증권	0.44
26	피엔에이치테크	12,384	한국투자증권	0.43
27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12,000	하나금융투자	0.42
28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8,000	신한금융투자	0.28
29	한국제9호기업인수목적	8,000	한국투자증권	0.28
30	디비금융제9호기업인수목적	8,000	DB금융투자	0.28
31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	7,000	하나금융투자	0.25
32	아이비케이에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6,400	IBK투자증권	0.22
합계		2,855,280		100.00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참고] 2021년 1분기 기업공개(IPO) 기업별 수수료 순위

순위	종목명	수수료 (백만)	수수료 (bp)	대표주관사
1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13,539	275.78	삼성증권
2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11,934	80.00	NH투자증권
3	네오이뮨텍	6,639	590.11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4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5,252	576.25	미래에셋증권
5	오로스테크놀로지	2,250	563.78	키움증권
6	솔루엠	2,176	200.00	미래에셋증권, KB증권
7	뷰노	1,940	513.23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8	바이오다인	1,854	618.00	대신증권
9	씨앤투스성진	1,792	350.00	미래에셋증권
10	레인보우로보틱스	1,638	618.00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11	엔시스	1,564	358.01	미래에셋증권
12	유일에너테크	1,388	359.06	신영증권
13	씨이랩	1,024	450.00	IBK투자증권
14	엔비티	977	618.00	미래에셋증권
15	모비릭스	873	346.40	한국투자증권
16	와이더플래닛	824	515.00	한국투자증권
17	나노씨엠에스	824	515.00	키움증권
18	제노코	818	463.50	DB금융투자
19	핑거	743	357.08	대신증권
20	아이퀘스트	680	309.00	미래에셋증권
21	자이언트스텝	674	437.75	한국투자증권
22	피엔에이치테크	638	515.00	한국투자증권
23	선진뷰티사이언스	633	300.00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24	라이프시맨틱스	579	463.50	한국투자증권
25	싸이버원	519	401.70	키움증권
26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438	350.00	유안타증권
27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360	300.00	하나금융투자
28	아이비케이에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300	468.75	IBK투자증권
29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	300	428.57	하나금융투자
30	디비금융제9호기업인수목적	280	350.00	DB금융투자
31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280	350.00	신한금융투자
32	한국제9호기업인수목적	240	300.00	한국투자증권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 수수료율(bp)은 각 주관사가 받은 수수료 합을 기준으로 계산.

[참고] 2021년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별 현황

시장	발행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코스피	2,091,482	3 건	73.25
코스닥	763,797	29 건	26.75
합계	2,855,280	32 건	100.00

2021년 1분기 유상증자(RO)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KB증권	1,662,574	6	23.85	2,291,746
2	한국투자증권	1,278,549	4	18.34	1,209,509
3	NH투자증권	1,195,458	4	17.15	1,177,987
4	유진투자증권	596,814	3	8.56	568,144
5	키움증권	473,710	1	6.80	315,107
5	삼성증권	473,710	1	6.80	210,071
5	DB금융투자	473,710	1	6.80	210,071
8	미래에셋증권	404,979	3	5.81	484,395
9	대신증권	269,218	1	3.86	257,719
10	노무라	111,115	1	1.59	179,489
11	신한금융투자	30,853	1	0.44	66,455
총합계		6,970,692	26	100.00	6,970,692

* 유상증자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1년 1분기 유상증자(RO)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1,635,773	7	23.47
2	NH투자증권	1,140,890	4	16.37
3	한국투자증권	1,132,526	4	16.25
4	키움증권	397,917	1	5.71
5	유진투자증권	388,381	3	5.57
6	미래에셋증권	377,200	3	5.41
7	삼성증권	293,079	2	4.20
8	대신증권	269,218	1	3.86
9	DB금융투자	265,278	1	3.81
10	신한금융투자	229,812	2	3.30
11	IBK투자증권	198,958	1	2.85
11	SK증권	198,958	1	2.85
13	하이투자증권	132,639	1	1.90
14	노무라	83,336	1	1.20
15	유안타증권	66,319	1	0.95
15	신영증권	66,319	1	0.95
15	한화투자증권	66,319	1	0.95
18	하나금융투자	27,768	1	0.40
총합계		6,970,692	36	100.00

* 유상증자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
* 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유상증자(RO)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대신증권	97,448	1	55.55
2	한국투자증권	63,349	2	36.11
3	유진투자증권	14,642	1	8.35
총합계		175,439	4	100.00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모집주선실적은 없고 수수료만 받은 주관사는 기재하지 않음.

[참고] 2021년 1분기 기업별 유상증자(RO)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 (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대한항공	3,315,972	1	KB,NH투자, 한국투자,키움, 삼성,유진투자, DB금융투자
2	한화솔루션	1,346,090	1	대신,미래에셋, KB,한국투자, NH투자
3	포스코케미칼	1,273,518	1	한국투자, NH투자, KB
4	대선조선	479,878	1	
5	씨에스윈드	467,400	1	KB
6	제이티비씨스튜디오	400,000	1	
7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33,345	1	한국투자, 노무라, 미래에셋증권
8	카카오모빌리티	219,940	1	
9	IBK투자증권	200,118	1	신영
10	넵튠	193,520	1	

2021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KB증권	30,000	1	100.00	30,000
총합계		30,000	1	100.00	3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합계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1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전환사채(C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1	KB증권	30,000	1	100.00	30,000
총합계		30,000	1	100.00	3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1년 1분기 주식연계증권(EL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15,000	1	50.00
1	KB증권	15,000	1	50.00
총합계		30,000	2	100.00

* 주식연계증권(EL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전환사채(C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 (백만원)	건수	점유율 (%)	조정실적 (백만원)
-	-	-	-	-	-
총합계		-	-	-	-

* 전환사채(CB)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조정실적은 명목실적에 수수료율을 토태로 산정한 가중치를 차등 반영한 거래실적.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를 주관한 IB일수록 명목실적 대비 조정실적이 높게 책정.

2021년 1분기 전환사채(C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전환사채(C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참고] 2021년 1분기 기업별 전환사채(CB)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카카오게임즈	500,000	1	
2	서진시스템	110,000	2	
3	일동제약	100,000	1	
4	롯데관광개발	94,260	2	
5	메드팩토	70,000	1	
6	아난티	60,000	1	
7	디지탈옵틱	58,000	2	
8	쎄트렉아이	50,000	1	
9	아이큐어	50,000	1	
10	이아이디	40,000	2	

2021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유진투자증권	15,000	1	50.00
1	KB증권	15,000	1	50.00
총합계		30,000	2	1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 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교환사채(EB)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조정실적(백만원)
-	-	-	-	-	-
총합계		-	-	-	-

* 교환사채(EB) 발행 중 주관사 지정 거래 순위(공모 및 사모, 소액공모 포함)
* 대표주관과 공동주관 별도 집계 후 전체주관실적에서 합산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 단순모집주선 금액 제외, 증권신고서상 인수 금액만을 반영
* 금액 및 건수총계는 주관사 지정 거래만을 포함한 수치

[참고] 2021년 1분기 기업별 교환사채(EB)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엠에스오토텍	25,000	1	
2	이녹스첨단소재	21,911	1	
3	한컴위드	13,000	1	
4	삼화페인트공업	10,000	1	
5	녹원씨엔아이	10,000	1	
6	제우스	9,128	1	
7	글로벌텍스프리	3,480	1	
8	디딤	2,900	1	
9	아이에스이커머스	2,400	1	
10	한라IMS	2,000	1	

[참고] 2021년 1분기 기업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규모 순위				
순위	종목명	금액(백만원)	건수	주관 및 주선
1	엘앤에프	30,000	1	
2	아스트	30,000	1	KB
3	알에프에이치아이씨	30,000	1	
4	알엔투테크놀로지	20,000	1	
5	청보산업	17,000	2	
6	티사이언티픽	15,000	2	
7	브레인콘텐츠	15,000	1	
8	브이티지엠피	10,500	1	
9	골드퍼시픽	10,000	1	
10	노랑풍선	10,000	1	

2021년 1분기 교환사채(EB) 인수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교환사채(EB)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금액 기준 순위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2021년 1분기 블록딜 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크레디트스위스	832,650	2	37.05
2	씨티글로벌마켓증권	636,650	2	28.33
3	KB증권	480,600	1	21.38
4	NH투자증권	297,700	3	13.25
총합계		2,247,600	8	100.00

* 점유율은 총금액 대비 사별 거래금액 기준
* 500억원 이상 거래 한정

2021년 1분기 교환사채(EB) 모집주선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인수금액 제외, 단순 모집주선 금액만을 반영
* 점유율은 주관사 지정 거래 총규모 대비 주관사별 주관금액 기준

1st quarter of 2021
thebell League Table

Debt Capital Markets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채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된 일반 회사채(SB)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대상으로 한다.
- 발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채권은 제외한다.
- 일반회사채(SB)에는 무보증채권과 보증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단 공사채는 제외한다.
- 옵션부(조기상환부채권, 수시상환채권) 채권을 집계 대상에 포함하되, 옵션 내용을 별도 표기한다.
- 주식관련 사채(CB, BW,EB)는 Equity Capital Market 리그테이블에서 별도 집계한다.
- 일반 회사채 중 금융채를 별도 집계하되, 은행채는 제외한다.
- 자산유동화증권(ABS) 중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제외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은 별도 집계한다.
- 일반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중 대표주관사가 주관하고 인수사가 인수한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다.
- 발행일은 납입일 기준으로 하며 발행 스프레드는 국고채 3년물을 기준으로 환산해 작성한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대표주관실적과 인수실적을 대상으로 리그테이블을 산정한다. 공동주관 실적은 집계하지 않는다.
- 일반회사채(SB) 대표주관실적은 수요예측을 실시한 채권에 한해 리그테이블을 산정한다. 일괄신고채권의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실시할 경우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한다. 단 인수실적의 경우 수요예측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여신전문금융사채권(FB)은 시장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주관 실적을 산정한다.
- 모집주선 실적은 대표주관 실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집계한다. 종합 성적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 대표주관 실적과 인수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
- 대표주관 실적은 총발행금액을 대표주관사 수에 따라 비례 안분한다.
- 대표주관사에 대한 실적 배분은 해당 회사채의 회차별로 한다. 회차 내에서 트렌치가 분리돼 발행된 채권이라도 대표주관사 업무를 수행한 모든 대표주관사 수에 따라 비례 안분한다.
  인수실적은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각 인수사의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주관실적과 인수실적은 각 대표주관사 또는 인수사가 수취한 수수료를 반영해 조정한다. 이때 수수료는 시장평균 수수료 대비 해당 대표주관 또는 인수사의 상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표주관의 경우 수수료 수취가 일반화되는 적절한 시점부터 조정실적을 산정한다.

Overview

2021년 1분기 회사채 발행액이 사상 최초로 40조원을 돌파. 지속되는 저금리와 풍부한 기관 수요에 매력을 느낀 발행사가 신용등급에 개의치 않고 앞다퉈 직접 조달에 착수. 1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발행을 연기했던 기업도 속속 시장에 복귀.

회사채 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떠오른 ESG채권은 역대급 발행을 이끈 일등공신. 현대자동차, SK㈜, LG화학, 롯데지주 등 여러 빅 이슈어(big issuer)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며 ESG채권 활성화를 주도.

◇회사채 금리 메리트 부각

더벨이 집계한 2021년 1분기 국내 공모채 발행액은 총 41조2534억원. 33조6637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약 7조6000억원(22.5%) 증가. 1분기 공모채 발행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선 것은 더벨이 리그테이블을 집계한 2008년 이래 올해가 처음.

종류별로 일반 회사채(SB) 20조4120억원, 여전채(FB) 17조8785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 2조9629억원이 각각 시장에 출회. 일반 회사채와 여전채는 전년 동기 대비 3~4조원의 증가세를 보이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발행액을 경신.

일반 회사채가 전체 발행액의 50%를 책임지며 40조원 돌파를 주도.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한화, 네이버, CJ, KT, 포스코,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집단의 여러 빅 이슈어가 1월부터 적극적으로 발행에 나서 수천억원을 조달한 결과.

신한, KB, 우리, 하나를 비롯한 국내 금융지주의 수많은 계열사가 발행 대열에 동참한 여전채도 매월 증가세를 지속. 특히 3월 들어서는 1년 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하게 불렸던 단기 차입금을 갚기 위한 차환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짐.

시장에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가 역대급 발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을 제기.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인하. 이어 7월과 8월 연이어 금리를 동결하며 시장 활성화와 수급 개선을 유도. 그 결과 시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AA- 등급 3년물의 금리는 2020년 4월 1.75%에서 2021년 3월 1.34%까지 하락.

2020년 코로나19를 피해 조달 시점을 미룬 기업이 시장에 돌아온 것도 사상 최대 발행에 적잖이 기여. 신세계, ㈜CJ, SK렌터카,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한솔케미칼 등은 2년만에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만족스러운 금리를 확정하며 원활하게 자금을 마련.

오랜만에 시장에 복귀하거나 초도 발행에 나선 기업이 여럿 등장한 것도 역대급 장세에 일조. 6년만에 공모채 발행을 재개한 네이버는 단일 회차 기준 최대 규모인 7000억원을 조달. 넷마블그룹 편입 후 처음으로 수요예측에 나선 코웨이는 1조원에 육박하는 주문을 모으며 4200억원 증액 발행에 성공.

◇이제는 ESG가 시장 대세

2021년 회사채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채권은 저금리 기조가 촉발한 발행 랠리에 촉매 역할을 담당. 1분기에만 총 6조3130억원의 공모 ESG채권이 시장에 출회. 현대자동차, SK㈜, LG화학, 롯데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 KB증권, 우리카드, 신한캐피탈 등 20~30곳의 기업과 금융사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을 연이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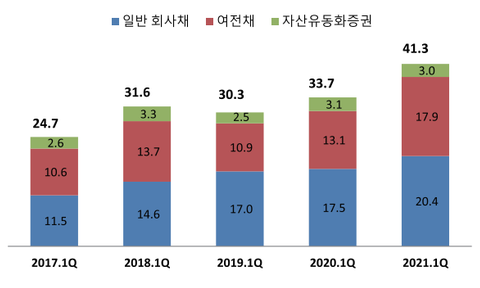
발행사는 ESG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산업재해 예방, 중소기업 동반 성장,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투입. 1조2000억원 가운데 무려 8200억원을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으로 책정한 LG화학은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양극재 증설, 소아마비 백신 개발, 협력사 금융 지원을 꾸준하게 추진할 예정.

정부의 ESG 활성화 정책에 맞춰 투자 전략을 재정비한 기관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치열한 매입 경쟁을 벌이며 발행사의 노고에 화답. 현대제철이 1월 말 발행한 5년물 녹색채권에는 모집액의 7배가 넘는 1조200억원의 수요가 쇄도.

ESG채권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 현대건설기계, GS E&R, GS파워, 만도,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등이 4월부터 ESG채권 발행을 계획.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잇달아 ESG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관 투자자도 늘어나는 공급에 대비하는 추세.

1분기 국내 회사채 발행 추이

(단위:조원)



국내 주요 발행사 ESG 채권 발행 내역

(단위:억원)

발행사	구분	금액	발행일	만기일
롯데지주	지속가능	600	2021-01-25	2031-01-21
현대제철	녹색	1,300	2021-01-25	2024-01-25
		2,300	2021-01-25	2026-01-25
		1,400	2021-01-25	2028-01-25
현대오일뱅크	녹색	900	2021-01-28	2024-01-28
		1,500	2021-01-28	2026-01-28
		900	2021-01-28	2028-01-28
		700	2021-01-28	2031-01-28
롯데글로벌로지스	녹색	500	2021-01-29	2026-01-29
SK렌터카	녹색	980	2021-02-04	2026-02-04
현대자동차	녹색	1,500	2021-02-09	2024-02-09
		1,800	2021-02-09	2026-02-09
		700	2021-02-09	2028-02-09
LG화학	녹색 사회적	3,500	2021-02-19	2024-02-19
		2,700	2021-02-19	2026-02-19
		2,000	2021-02-19	2028-02-19
SK㈜	녹색	600	2021-02-24	2024-02-24
		1,500	2021-02-24	2026-02-24
		300	2021-02-24	2028-02-24
		800	2021-02-24	2031-02-24
SK건설	녹색	3,000	2021-02-26	2024-02-26
롯데렌탈	녹색	1,200	2021-02-26	2026-02-26
		700	2021-02-26	2028-02-26
기아자동차	녹색	1,000	2021-03-03	2024-03-03
		1,500	2021-03-03	2026-03-03
		500	2021-03-03	2028-03-03
세아제강	녹색	800	2021-03-04	2024-03-04
현대중공업	녹색	600	2021-03-05	2023-03-05
		2,400	2021-03-05	2024-03-05
포스코인터내셔널	녹색	800	2021-03-19	2026-03-19
포스코건설	지속가능	1,400	2021-03-26	2024-03-26

* 일반 회사채 기준

2021년 1분기 국내채권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10,119,853	92	26.07
2	NH투자증권	8,229,000	75	21.20
3	한국투자증권	4,890,153	51	12.60
4	SK증권	3,137,667	20	8.08
5	신한금융투자	2,381,820	26	6.14
6	미래에셋증권	2,195,333	30	5.65
7	한양증권	1,830,000	12	4.71
8	키움증권	1,668,167	16	4.30
9	교보증권	1,355,000	12	3.49
10	삼성증권	686,667	10	1.77
11	DB금융투자	549,333	7	1.41
12	부국증권	480,000	2	1.24
13	한화투자증권	192,000	3	0.49
14	신영증권	154,333	4	0.40
15	하나금융투자	150,833	2	0.39
16	BNK투자증권	130,000	2	0.33
17	IBK투자증권	127,820	7	0.33
1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03,820	5	0.27
19	하이투자증권	100,000	1	0.26
20	흥국증권	80,000	2	0.21
20	유진투자증권	80,000	1	0.21
22	유안타증권	73,820	3	0.19
23	메리츠증권	73,820	3	0.19
24	우리종합금융	34,000	1	0.09
총합계		38,823,437	387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1년 1분기 국내채권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5,439,614	13.19	122	16.10	5,389,313
2	한국투자증권	4,620,329	11.20	117	14.83	4,182,409
3	NH투자증권	4,525,500	10.97	115	15.49	4,005,136
4	SK증권	3,628,500	8.80	72	17.81	3,987,500
5	신한금융투자	2,309,894	5.60	62	17.63	2,309,376
6	미래에셋증권	1,910,500	4.63	70	14.78	1,853,972
7	한양증권	1,794,500	4.35	78	14.28	1,966,126
8	키움증권	1,623,400	3.94	56	16.88	1,602,617
9	이베스트투자증권	1,620,000	3.93	72	12.60	1,705,956
10	교보증권	1,255,000	3.04	49	10.59	1,073,821
11	현대차증권	1,110,000	2.69	46	15.23	1,003,907
12	부국증권	975,000	2.36	51	14.71	1,247,746
13	한화투자증권	962,000	2.33	49	14.97	974,687
14	하나금융투자	928,000	2.25	31	15.93	856,439
15	하이투자증권	870,000	2.11	40	17.77	998,203
16	신영증권	804,600	1.95	58	12.86	694,144
17	DB금융투자	797,500	1.93	46	16.13	864,848
18	BNK투자증권	702,000	1.70	33	11.08	608,154
19	삼성증권	684,500	1.66	28	19.02	673,719
20	유진투자증권	645,000	1.56	45	12.20	632,029
21	메리츠증권	564,573	1.37	28	9.78	420,007
22	KTB투자증권	539,000	1.31	37	11.00	496,528
23	흥국증권	448,000	1.09	30	14.10	534,176
24	유안타증권	423,821	1.03	29	14.12	440,131
25	대신증권	367,000	0.89	23	20.93	416,060
26	케이알투자증권	343,000	0.83	29	30.34	889,025
27	IBK투자증권	334,130	0.81	22	12.61	285,574
2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48,076	0.60	16	13.96	294,006
29	케이프투자증권	210,000	0.51	14	11.35	205,178
30	한국산업은행	165,000	0.40	2	11.52	200,244
31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40,000	0.34	12	11.39	137,244
32	DS투자증권	135,000	0.33	13	14.67	170,522
33	우리종합금융	100,000	0.24	5	16.00	116,559
34	카카오페이증권	30,000	0.07	2	7.00	18,081
총합계		41,253,437	100.00	1,502	15.36	41,253,437

*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1년 1분기 국내채권(ABS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8,817,833	84	24.59
2	NH투자증권	8,229,000	75	22.95
3	한국투자증권	4,708,833	47	13.13
4	신한금융투자	2,308,000	23	6.44
5	SK증권	2,269,167	17	6.33
6	미래에셋증권	2,195,333	30	6.12
7	한양증권	1,830,000	12	5.10
8	키움증권	1,668,167	16	4.65
9	교보증권	1,210,000	11	3.37
10	삼성증권	686,667	10	1.91
11	DB금융투자	549,333	7	1.53
12	부국증권	480,000	2	1.34
13	신영증권	154,333	4	0.43
14	하나금융투자	150,833	2	0.42
15	BNK투자증권	130,000	2	0.36
16	하이투자증권	100,000	1	0.28
17	한화투자증권	95,000	2	0.26
18	유진투자증권	80,000	1	0.22
18	흥국증권	80,000	2	0.22
20	IBK투자증권	54,000	4	0.15
21	우리종합금융	34,000	1	0.09
2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0,000	2	0.08
총합계		35,860,500	355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1년 1분기 국내채권(ABS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4,629,400	12.09	111	17.33	4,470,472
2	NH투자증권	4,480,500	11.70	114	15.55	3,948,931
3	한국투자증권	4,341,100	11.34	112	15.42	3,986,168
4	SK증권	3,020,000	7.89	69	19.39	3,227,478
5	신한금융투자	2,105,500	5.50	56	18.69	2,138,028
6	미래에셋증권	1,840,500	4.81	69	14.96	1,766,542
7	한양증권	1,794,500	4.69	78	14.28	1,966,126
8	키움증권	1,623,400	4.24	56	16.88	1,602,617
9	이베스트투자증권	1,620,000	4.23	72	12.60	1,705,956
10	교보증권	1,110,000	2.90	48	11.98	1,073,821
11	현대차증권	1,065,000	2.78	45	15.45	947,702
12	부국증권	895,000	2.34	50	14.74	1,104,080
13	한화투자증권	865,000	2.26	48	14.91	787,336
14	하나금융투자	858,000	2.24	30	16.41	769,008
15	신영증권	804,600	2.10	58	12.86	694,144
16	하이투자증권	800,000	2.09	39	18.45	910,773
17	DB금융투자	797,500	2.08	46	16.13	864,848
18	BNK투자증권	702,000	1.83	33	11.08	608,154
19	삼성증권	684,500	1.79	28	19.02	673,719
20	유진투자증권	645,000	1.68	45	12.20	632,029
21	KTB투자증권	539,000	1.41	37	11.00	496,528
22	메리츠증권	490,000	1.28	25	11.12	411,030
23	흥국증권	448,000	1.17	30	14.10	534,176
24	대신증권	367,000	0.96	23	20.93	416,060
25	유안타증권	349,000	0.91	26	16.94	431,154
26	케이알투자증권	343,000	0.90	29	30.34	889,025
27	IBK투자증권	258,000	0.67	19	16.05	276,598
28	케이프투자증권	210,000	0.55	14	11.35	205,178
2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75,000	0.46	13	19.39	285,029
3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40,000	0.37	12	11.39	137,244
31	DS투자증권	135,000	0.35	13	14.67	170,522
32	우리종합금융	100,000	0.26	5	16.00	116,559
33	카카오페이증권	30,000	0.08	2	7.00	18,081
34	한국산업은행	25,000	0.07	1	20.00	25,382
총합계		38,290,500	100.00	1,456	15.92	38,290,500

* 일반기업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1년 1분기 국내채권(ABS, FB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4,472,833	48	24.87
2	NH투자증권	3,599,000	37	20.01
3	한국투자증권	2,764,833	27	15.38
4	SK증권	2,159,167	15	12.01
5	신한금융투자	1,793,000	18	9.97
6	미래에셋증권	828,833	13	4.61
7	키움증권	678,167	10	3.77
8	삼성증권	646,667	9	3.60
9	한양증권	600,000	1	3.34
10	하나금융투자	150,833	2	0.84
11	신영증권	104,333	3	0.58
12	하이투자증권	100,000	1	0.56
13	DB금융투자	59,333	2	0.33
14	한화투자증권	25,000	1	0.14
총합계		17,982,000	187	10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발행을 집계(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1년 1분기 국내채권(ABS, FB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3,506,400	17.18	56	19.66	3,499,215
2	NH투자증권	2,970,500	14.55	57	19.51	2,942,630
3	한국투자증권	2,636,100	12.91	45	19.08	2,553,239
4	SK증권	2,220,000	10.88	30	23.13	2,606,262
5	신한금융투자	1,800,500	8.82	37	19.64	1,794,788
6	키움증권	988,400	4.84	32	21.67	1,087,305
7	미래에셋증권	887,500	4.35	25	19.26	867,823
8	현대차증권	755,000	3.70	19	17.58	673,902
9	하나금융투자	718,000	3.52	20	17.47	636,844
10	삼성증권	652,500	3.20	23	19.41	642,809
11	하이투자증권	490,000	2.40	20	20.80	517,293
12	한화투자증권	445,000	2.18	21	20.55	464,244
13	한양증권	425,000	2.08	8	16.01	345,454
14	DB금융투자	337,500	1.65	12	20.33	348,373
15	신영증권	309,600	1.52	20	18.01	283,014
16	대신증권	297,000	1.46	17	23.38	352,561
17	교보증권	140,000	0.69	5	14.29	101,530
18	IBK투자증권	138,000	0.68	7	16.38	114,728
19	메리츠증권	120,000	0.59	4	13.75	83,762
19	BNK투자증권	120,000	0.59	5	14.58	88,838
21	유안타증권	105,000	0.51	7	21.00	111,936
22	이베스트투자증권	75,000	0.37	4	19.33	73,609
23	유진투자증권	65,000	0.32	8	19.85	65,487
23	부국증권	65,000	0.32	4	13.85	45,688
25	KTB투자증권	40,000	0.20	1	10.00	20,306
26	우리종합금융	30,000	0.15	1	20.00	30,459
26	흥국증권	30,000	0.15	2	9.33	14,214
28	한국산업은행	25,000	0.12	1	20.00	25,382
29	케이알투자증권	10,000	0.05	1	20.00	10,153
2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0,000	0.05	1	20.00	10,153
총합계		20,412,000	100.00	493	19.70	20,412,000

* 일반기업 회사채(SB) 발행을 집계(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제외)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1년 1분기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4,630,000	38	25.90
2	KB증권	4,345,000	36	24.30
3	한국투자증권	1,944,000	20	10.87
4	미래에셋증권	1,366,500	17	7.64
5	한양증권	1,230,000	11	6.88
6	교보증권	1,210,000	11	6.77
7	키움증권	990,000	6	5.54
8	신한금융투자	515,000	5	2.88
9	DB금융투자	490,000	5	2.74
10	부국증권	480,000	2	2.68
11	BNK투자증권	130,000	2	0.73
12	SK증권	110,000	2	0.62
13	유진투자증권	80,000	1	0.45
13	흥국증권	80,000	2	0.45
15	한화투자증권	70,000	1	0.39
16	IBK투자증권	54,000	4	0.30
17	신영증권	50,000	1	0.28
18	삼성증권	40,000	1	0.22
19	우리종합금융	34,000	1	0.19
2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0,000	2	0.17
총합계		17,878,500	168	100.00

* 사모 발행은 제외

2021년 1분기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한국투자증권	1,705,000	9.54	67	9.76	1,432,929
2	이베스트투자증권	1,545,000	8.64	68	12.27	1,632,347
3	NH투자증권	1,510,000	8.45	57	7.74	1,006,301
4	한양증권	1,369,500	7.66	70	13.74	1,620,672
5	KB증권	1,123,000	6.28	55	10.04	971,258
6	교보증권	970,000	5.43	43	11.64	972,291
7	미래에셋증권	953,000	5.33	44	10.95	898,718
8	부국증권	830,000	4.64	46	14.81	1,058,392
9	SK증권	800,000	4.47	39	9.02	621,216
10	키움증권	635,000	3.55	24	9.43	515,312
11	BNK투자증권	582,000	3.26	28	10.36	519,316
12	유진투자증권	580,000	3.24	37	11.34	566,542
13	KTB투자증권	499,000	2.79	36	11.08	476,223
14	신영증권	495,000	2.77	38	9.65	411,130
15	DB금융투자	460,000	2.57	34	13.04	516,475
16	한화투자증권	420,000	2.35	27	8.93	323,093
17	흥국증권	418,000	2.34	28	14.45	519,962
18	메리츠증권	370,000	2.07	21	10.27	327,268
19	케이알투자증권	333,000	1.86	28	30.65	878,872
20	하이투자증권	310,000	1.73	19	14.74	393,480
20	현대차증권	310,000	1.73	26	10.26	273,800
22	신한금융투자	305,000	1.71	19	13.07	343,240
23	유안타증권	244,000	1.36	19	15.19	319,218
24	케이프투자증권	210,000	1.17	14	11.35	205,178
25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65,000	0.92	12	19.35	274,876
26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40,000	0.78	12	11.39	137,244
26	하나금융투자	140,000	0.78	10	10.96	132,164
28	DS투자증권	135,000	0.76	13	14.67	170,522
29	IBK투자증권	120,000	0.67	12	15.67	161,869
30	우리종합금융	70,000	0.39	4	14.29	86,101
30	대신증권	70,000	0.39	6	10.54	63,499
32	삼성증권	32,000	0.18	5	11.22	30,910
33	카카오페이증권	30,000	0.17	2	7.00	18,081
총합계		17,878,500	100.00	963	11.61	17,878,500

* 사모 발행은 제외

2021년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1,302,020	8	43.94
2	SK증권	868,500	3	29.31
3	한국투자증권	181,320	4	6.12
4	교보증권	145,000	1	4.89
5	한화투자증권	97,000	1	3.27
6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3,820	3	2.49
6	유안타증권	73,820	3	2.49
6	IBK투자증권	73,820	3	2.49
9	신한금융투자	73,820	3	2.49
10	메리츠증권	73,820	3	2.49
총합계		2,962,937	32	100.00

* 공모 발행 자산유동화유가증권 대상(CBO를 포함하며, ABCP는 제외)
* 주택저당채권(MBS)은 별도 집계함

2021년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810,214	27.34	11	9.08	918,840
2	SK증권	608,500	20.54	3	10.00	760,021
3	한국투자증권	279,229	9.42	5	5.63	196,240
4	신한금융투자	204,394	6.90	6	6.71	171,348
5	교보증권	145,000	4.89	1	0.00	0
6	한국산업은행	140,000	4.73	1	10.00	174,861
7	한화투자증권	97,000	3.27	1	15.46	187,351
8	부국증권	80,000	2.70	1	14.38	143,666
9	IBK투자증권	76,130	2.57	3	0.94	8,977
10	유안타증권	74,821	2.53	3	0.96	8,977
11	메리츠증권	74,573	2.52	3	0.96	8,977
1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3,076	2.47	3	0.98	8,977
13	미래에셋증권	70,000	2.36	1	10.00	87,431
13	하이투자증권	70,000	2.36	1	10.00	87,431
13	하나금융투자	70,000	2.36	1	10.00	87,431
16	NH투자증권	45,000	1.52	1	10.00	56,205
16	현대차증권	45,000	1.52	1	10.00	56,205
총합계		2,962,937	100.00	46	8.01	2,962,937

* 공모 발행 자산유동화유가증권 대상(CBO를 포함하며, ABCP는 제외)
* 주택저당채권(MBS)은 별도 집계함

2021년 1분기 원화채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10,119,853	92	26.07
2	NH투자증권	8,229,000	75	21.20
3	한국투자증권	4,890,153	51	12.60
4	SK증권	3,137,667	20	8.08
5	신한금융투자	2,381,820	26	6.14
6	미래에셋증권	2,195,333	30	5.65
7	한양증권	1,830,000	12	4.71
8	키움증권	1,668,167	16	4.30
9	교보증권	1,355,000	12	3.49
10	삼성증권	686,667	10	1.77
11	DB금융투자	549,333	7	1.41
12	부국증권	480,000	2	1.24
13	한화투자증권	192,000	3	0.49
14	신영증권	154,333	4	0.40
15	하나금융투자	150,833	2	0.39
16	BNK투자증권	130,000	2	0.33
17	IBK투자증권	127,820	7	0.33
1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03,820	5	0.27
19	하이투자증권	100,000	1	0.26
20	흥국증권	80,000	2	0.21
20	유진투자증권	80,000	1	0.21
22	유안타증권	73,820	3	0.19
23	메리츠증권	73,820	3	0.19
24	우리종합금융	34,000	1	0.09
총합계		38,823,437	387	100.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1년 1분기 원화채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5,439,614	13.19	122	16.10	5,389,313
2	한국투자증권	4,620,329	11.20	117	14.83	4,182,409
3	NH투자증권	4,525,500	10.97	115	15.49	4,005,136
4	SK증권	3,628,500	8.80	72	17.81	3,987,500
5	신한금융투자	2,309,894	5.60	62	17.63	2,309,376
6	미래에셋증권	1,910,500	4.63	70	14.78	1,853,972
7	한양증권	1,794,500	4.35	78	14.28	1,966,126
8	키움증권	1,623,400	3.94	56	16.88	1,602,617
9	이베스트투자증권	1,620,000	3.93	72	12.60	1,705,956
10	교보증권	1,255,000	3.04	49	10.59	1,073,821
11	현대차증권	1,110,000	2.69	46	15.23	1,003,907
12	부국증권	975,000	2.36	51	14.71	1,247,746
13	한화투자증권	962,000	2.33	49	14.97	974,687
14	하나금융투자	928,000	2.25	31	15.93	856,439
15	하이투자증권	870,000	2.11	40	17.77	998,203
16	신영증권	804,600	1.95	58	12.86	694,144
17	DB금융투자	797,500	1.93	46	16.13	864,848
18	BNK투자증권	702,000	1.70	33	11.08	608,154
19	삼성증권	684,500	1.66	28	19.02	673,719
20	유진투자증권	645,000	1.56	45	12.20	632,029
21	메리츠증권	564,573	1.37	28	9.78	420,007
22	KTB투자증권	539,000	1.31	37	11.00	496,528
23	흥국증권	448,000	1.09	30	14.10	534,176
24	유안타증권	423,821	1.03	29	14.12	440,131
25	대신증권	367,000	0.89	23	20.93	416,060
26	케이알투자증권	343,000	0.83	29	30.34	889,025
27	IBK투자증권	334,130	0.81	22	12.61	285,574
2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48,076	0.60	16	13.96	294,006
29	케이프투자증권	210,000	0.51	14	11.35	205,178
30	한국산업은행	165,000	0.40	2	11.52	200,244
31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40,000	0.34	12	11.39	137,244
32	DS투자증권	135,000	0.33	13	14.67	170,522
33	우리종합금융	100,000	0.24	5	16.00	116,559
34	카카오페이증권	30,000	0.07	2	7.00	18,081
총합계		41,253,437	100.00	1,502	15.36	41,253,437

* 원화로 발행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 국내 발행 채권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2021년 1분기 원화채(ABS 제외)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8,817,833	84	24.59
2	NH투자증권	8,229,000	75	22.95
3	한국투자증권	4,708,833	47	13.13
4	신한금융투자	2,308,000	23	6.44
5	SK증권	2,269,167	17	6.33
6	미래에셋증권	2,195,333	30	6.12
7	한양증권	1,830,000	12	5.10
8	키움증권	1,668,167	16	4.65
9	교보증권	1,210,000	11	3.37
10	삼성증권	686,667	10	1.91
11	DB금융투자	549,333	7	1.53
12	부국증권	480,000	2	1.34
13	신영증권	154,333	4	0.43
14	하나금융투자	150,833	2	0.42
15	BNK투자증권	130,000	2	0.36
16	하이투자증권	100,000	1	0.28
17	한화투자증권	95,000	2	0.26
18	유진투자증권	80,000	1	0.22
18	흥국증권	80,000	2	0.22
20	IBK투자증권	54,000	4	0.15
21	우리종합금융	34,000	1	0.09
2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0,000	2	0.08
총합계		35,860,500	355	100.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 기업의 공모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제외

2021년 1분기 원화채(ABS 제외)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4,629,400	12.09	111	17.33	4,470,472
2	NH투자증권	4,480,500	11.70	114	15.55	3,948,931
3	한국투자증권	4,341,100	11.34	112	15.42	3,986,168
4	SK증권	3,020,000	7.89	69	19.39	3,227,478
5	신한금융투자	2,105,500	5.50	56	18.69	2,138,028
6	미래에셋증권	1,840,500	4.81	69	14.96	1,766,542
7	한양증권	1,794,500	4.69	78	14.28	1,966,126
8	키움증권	1,623,400	4.24	56	16.88	1,602,617
9	이베스트투자증권	1,620,000	4.23	72	12.60	1,705,956
10	교보증권	1,110,000	2.90	48	11.98	1,073,821
11	현대차증권	1,065,000	2.78	45	15.45	947,702
12	부국증권	895,000	2.34	50	14.74	1,104,080
13	한화투자증권	865,000	2.26	48	14.91	787,336
14	하나금융투자	858,000	2.24	30	16.41	769,008
15	신영증권	804,600	2.10	58	12.86	694,144
16	하이투자증권	800,000	2.09	39	18.45	910,773
17	DB금융투자	797,500	2.08	46	16.13	864,848
18	BNK투자증권	702,000	1.83	33	11.08	608,154
19	삼성증권	684,500	1.79	28	19.02	673,719
20	유진투자증권	645,000	1.68	45	12.20	632,029
21	KTB투자증권	539,000	1.41	37	11.00	496,528
22	메리츠증권	490,000	1.28	25	11.12	411,030
23	흥국증권	448,000	1.17	30	14.10	534,176
24	대신증권	367,000	0.96	23	20.93	416,060
25	유안타증권	349,000	0.91	26	16.94	431,154
26	케이알투자증권	343,000	0.90	29	30.34	889,025
27	IBK투자증권	258,000	0.67	19	16.05	276,598
28	케이프투자증권	210,000	0.55	14	11.35	205,178
2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75,000	0.46	13	19.39	285,029
3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40,000	0.37	12	11.39	137,244
31	DS투자증권	135,000	0.35	13	14.67	170,522
32	우리종합금융	100,000	0.26	5	16.00	116,559
33	카카오페이증권	30,000	0.08	2	7.00	18,081
34	한국산업은행	25,000	0.07	1	20.00	25,382
총합계		38,290,500	100.00	1,456	15.92	38,290,500

* 원화로 발행된 일반 기업의 공모 회사채(SB)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발행을 집계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제외

2021년 1분기 외화표시채권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	-	-	-	-
총합계		-	-	-

*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후순위채는 ABS만 포함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 원화 기준 발행금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

2021년 1분기 외화표시채권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	-	-	-		-	-
총합계		-	-		-	-

*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일반기업 회사채(SB),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FB),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집계
* 사모발행 채권, 공사채, 은행채는 제외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는 제외
* 원화 기준 발행금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

2021년 1분기 AA급 이상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7,699,047	58	25.06
2	NH투자증권	6,773,000	54	22.05
3	한국투자증권	4,030,347	35	13.12
4	SK증권	2,612,667	16	8.51
5	신한금융투자	1,979,871	20	6.45
6	한양증권	1,680,000	11	5.47
7	미래에셋증권	1,678,833	19	5.47
8	키움증권	1,175,833	7	3.83
9	교보증권	805,000	7	2.62
10	삼성증권	646,667	9	2.11
11	부국증권	480,000	2	1.56
12	한화투자증권	167,000	2	0.54
13	하나금융투자	150,833	2	0.49
14	DB금융투자	130,000	2	0.42
14	BNK투자증권	130,000	2	0.42
16	하이투자증권	100,000	1	0.33
16	신영증권	100,000	2	0.33
1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81,871	4	0.27
19	유진투자증권	80,000	1	0.26
20	유안타증권	71,871	3	0.23
21	IBK투자증권	71,871	3	0.23
21	메리츠증권	71,871	3	0.23
총합계		30,716,585	263	100.00

2021년 1분기 AA급 이상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4,174,714	12.59	81	14.76	4,171,371
2	한국투자증권	3,958,014	11.94	89	13.71	3,593,028
3	NH투자증권	3,659,000	11.04	82	14.18	3,321,374
4	SK증권	3,083,500	9.30	60	16.26	3,393,265
5	신한금융투자	2,027,371	6.12	47	17.20	2,120,488
6	미래에셋증권	1,487,500	4.49	52	14.15	1,521,489
7	한양증권	1,395,000	4.21	52	12.33	1,582,160
8	이베스트투자증권	1,360,000	4.10	55	11.44	1,601,963
9	현대차증권	1,055,000	3.18	40	15.04	998,988
10	키움증권	1,015,500	3.06	37	11.89	864,425
11	교보증권	975,000	2.94	36	7.19	643,152
12	하나금융투자	878,000	2.65	28	15.26	821,627
13	한화투자증권	797,000	2.40	41	13.55	876,871
14	신영증권	680,000	2.05	49	12.03	675,510
15	하이투자증권	660,000	1.99	28	16.20	743,881
16	BNK투자증권	650,000	1.96	29	10.24	618,837
17	삼성증권	647,500	1.95	22	19.17	665,051
18	부국증권	635,000	1.92	34	11.47	751,657
19	DB금융투자	540,000	1.63	33	12.01	518,569
20	유진투자증권	535,000	1.61	35	9.40	506,880
21	메리츠증권	521,871	1.57	25	9.14	423,146
22	KTB투자증권	430,000	1.30	29	9.66	423,344
23	유안타증권	321,871	0.97	20	9.78	239,110
24	흥국증권	300,000	0.91	21	10.22	313,135
25	대신증권	273,000	0.82	17	19.81	328,169
26	IBK투자증권	224,871	0.68	11	10.37	134,930
27	케이프투자증권	200,000	0.60	13	11.17	239,090
28	케이알투자증권	160,000	0.48	13	35.56	598,493
2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41,871	0.43	8	5.93	80,662
30	한국산업은행	140,000	0.42	1	10.00	174,514
31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00,000	0.30	9	8.74	93,580
32	DS투자증권	50,000	0.15	5	8.96	47,968
33	우리종합금융	40,000	0.12	2	16.25	37,371
34	카카오페이증권	30,000	0.09	2	7.00	22,485
총합계		33,146,585	100.00	1,106	13.81	33,146,585

2021년 1분기 A급 이상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9,788,714	85	26.04
2	NH투자증권	8,149,667	72	21.68
3	한국투자증권	4,739,014	46	12.60
4	SK증권	3,137,667	20	8.35
5	신한금융투자	2,344,871	25	6.24
6	미래에셋증권	2,088,833	25	5.56
7	한양증권	1,830,000	12	4.87
8	키움증권	1,450,833	11	3.86
9	교보증권	1,355,000	12	3.60
10	삼성증권	646,667	9	1.72
11	DB금융투자	490,000	5	1.30
12	부국증권	480,000	2	1.28
13	한화투자증권	192,000	3	0.51
14	하나금융투자	150,833	2	0.40
15	BNK투자증권	130,000	2	0.35
16	신영증권	125,000	3	0.33
17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01,871	5	0.27
18	하이투자증권	100,000	1	0.27
19	유진투자증권	80,000	1	0.21
20	유안타증권	71,871	3	0.19
21	IBK투자증권	71,871	3	0.19
21	메리츠증권	71,871	3	0.19
총합계		37,596,585	350	100.00

2021년 1분기 A급 이상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백만)
1	KB증권	5,131,714	12.82	112	15.93	5,092,510
2	NH투자증권	4,454,000	11.13	111	15.35	3,941,940
3	한국투자증권	4,451,014	11.12	110	14.39	3,911,048
4	SK증권	3,618,500	9.04	71	17.83	3,998,148
5	신한금융투자	2,292,371	5.73	61	17.66	2,304,531
6	미래에셋증권	1,857,500	4.64	65	14.78	1,803,590
7	한양증권	1,755,000	4.38	73	14.35	1,952,441
8	이베스트투자증권	1,605,000	4.01	69	12.61	1,715,103
9	키움증권	1,461,500	3.65	51	16.13	1,372,114
10	교보증권	1,255,000	3.14	49	10.59	1,088,245
11	현대차증권	1,110,000	2.77	46	15.23	1,011,560
12	부국증권	975,000	2.44	51	14.71	1,262,469
13	한화투자증권	962,000	2.40	49	14.97	981,256
14	하나금융투자	928,000	2.32	31	15.93	861,729
15	하이투자증권	870,000	2.17	40	17.77	1,006,500
16	신영증권	785,000	1.96	56	12.62	676,477
17	DB금융투자	755,000	1.89	44	15.63	819,997
18	BNK투자증권	700,000	1.75	32	11.08	613,618
19	삼성증권	657,500	1.64	23	19.18	645,876
20	유진투자증권	630,000	1.57	43	12.05	619,646
21	메리츠증권	561,871	1.40	28	9.83	425,119
22	KTB투자증권	500,000	1.25	33	10.63	449,802
23	유안타증권	416,871	1.04	28	14.26	441,802
24	흥국증권	380,000	0.95	27	13.72	445,246
25	대신증권	367,000	0.92	23	20.93	419,052
26	케이알투자증권	320,000	0.80	25	31.52	873,636
27	IBK투자증권	279,871	0.70	17	12.55	227,391
2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46,871	0.62	16	14.03	297,937
29	케이프투자증권	210,000	0.52	14	11.35	208,095
30	한국산업은행	140,000	0.35	1	10.00	174,138
3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40,000	0.35	12	11.39	139,196
32	DS투자증권	110,000	0.27	11	15.55	149,369
33	우리종합금융	70,000	0.17	4	16.43	78,668
34	카카오페이증권	30,000	0.07	2	7.00	18,338
총합계		40,026,585	100.00	1,428	15.23	40,026,585

2021년 1분기 BBB급 이하 대표주관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KB증권	331,139	12	26.99
2	키움증권	217,333	5	17.71
3	한국투자증권	151,139	9	12.32
4	미래에셋증권	106,500	5	8.68
5	흥국증권	80,000	2	6.52
6	NH투자증권	79,333	3	6.47
7	DB금융투자	59,333	2	4.84
8	IBK투자증권	55,948	7	4.56
9	삼성증권	40,000	1	3.26
10	신한금융투자	36,948	4	3.01
11	우리종합금융	34,000	1	2.77
12	신영증권	29,333	1	2.39
13	유안타증권	1,948	3	0.16
13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948	3	0.16
15	메리츠증권	1,948	3	0.16
총합계		1,226,852	61	100.00

2021년 1분기 BBB급 이하 인수 순위						
순위	인수사	금액 (백만원)	점유율 (%)	건수	평균 bp	조정실적 (백만)
1	KB증권	307,900	25.10	15	18.86	261,783
2	한국투자증권	169,315	13.80	12	26.37	248,916
3	키움증권	161,900	13.20	5	23.67	188,304
4	NH투자증권	71,500	5.83	4	23.95	76,155
5	흥국증권	68,000	5.54	3	16.24	68,645
6	IBK투자증권	54,258	4.42	8	12.90	43,525
7	미래에셋증권	53,000	4.32	5	14.68	48,375
8	DB금융투자	42,500	3.46	2	25.00	44,762
9	한양증권	39,500	3.22	5	11.24	27,607
10	KTB투자증권	39,000	3.18	4	15.74	38,178
11	우리종합금융	30,000	2.45	1	15.00	27,980
12	삼성증권	27,000	2.20	5	15.15	23,426
13	DS투자증권	25,000	2.04	2	10.80	16,788
13	한국산업은행	25,000	2.04	1	20.00	21,064
15	케이알투자증권	23,000	1.87	4	13.91	19,897
16	신영증권	19,600	1.60	2	22.45	20,040
17	신한금융투자	17,523	1.43	4	12.84	13,990
18	유진투자증권	15,000	1.22	2	18.67	15,405
18	이베스트투자증권	15,000	1.22	3	11.07	10,322
20	SK증권	10,000	0.82	1	12.00	7,461
21	유안타증권	6,950	0.57	4	5.76	2,487
22	메리츠증권	2,701	0.22	3	0.00	0
23	BNK투자증권	2,000	0.16	1	14.00	1,741
24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205	0.10	3	0.00	0
25	부국증권	0	0.00	1	0.00	0
총합계		1,226,852	100.00	100	19.37	1,226,852

[참고] 2021년 1분기 주택금융공사 MBS 주관 및 인수 순위				
순위	House명	금액(백만원)	점유율	건수
1	DB금융투자	1,106,300	12.21	5
2	하이투자증권	870,000	9.61	4
2	교보증권	870,000	9.61	4
2	한양증권	870,000	9.61	4
2	IBK투자증권	870,000	9.61	4
6	SK증권	677,400	7.48	3
7	메리츠증권	661,900	7.31	3
8	한국투자증권	650,000	7.18	3
9	하나금융투자	630,000	6.96	3
10	부국증권	490,000	5.41	2
11	한화투자증권	424,900	4.69	2
12	이베스트투자증권	252,300	2.79	1
13	키움증권	240,000	2.65	1
13	신영증권	240,000	2.65	1
15	BNK투자증권	200,000	2.21	1
16	KHFC 자체인수	4,100	0.05	6
계		9,056,900	100.00	47

* ㈜ 후순위채권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자체 인수
* MBS의 경우 주관과 인수 실적에 차이가 없음

[참고] 2021년 1분기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내역					
발행일	채권명	발행금액 (백만원)	만기일	발행금리 (%)	옵션
2021-01-15	KHFC MBS 2021-01 1-1	169,400	2022-01-15	0.837	
2021-01-15	KHFC MBS 2021-01 1-2	180,000	2023-01-15	1.037	
2021-01-15	KHFC MBS 2021-01 1-3	230,000	2024-01-15	1.162	
2021-01-15	KHFC MBS 2021-01 1-4	490,000	2026-01-15	1.544	CALL
2021-01-15	KHFC MBS 2021-01 1-5	220,000	2028-01-15	1.694	CALL
2021-01-15	KHFC MBS 2021-01 1-6	180,000	2031-01-15	1.936	CALL
2021-01-15	KHFC MBS 2021-01 1-7	100,000	2036-01-15	1.996	CALL
2021-01-15	KHFC MBS 2021-01 1-8	30,000	2041-01-15	2.008	CALL
2021-01-15	KHFC MBS 2021-01 1-9	10,000	2051-01-15	1.999	CALL
2021-01-15	KHFC MBS 2021-01 2-1	800	2052-01-15	13.299	CALL
2021-01-22	KHFC MBS 2021-02 1-1	157,400	2022-01-22	0.845	
2021-01-22	KHFC MBS 2021-02 1-2	180,000	2023-01-22	0.027	
2021-01-22	KHFC MBS 2021-02 1-3	220,000	2024-01-22	1.153	
2021-01-22	KHFC MBS 2021-02 1-4	490,000	2026-01-22	1.514	CALL
2021-01-22	KHFC MBS 2021-02 1-5	230,000	2028-01-22	1.664	CALL
2021-01-22	KHFC MBS 2021-02 1-6	180,000	2031-01-22	1.927	CALL
2021-01-22	KHFC MBS 2021-02 1-7	110,000	2036-01-22	2.007	CALL
2021-01-22	KHFC MBS 2021-02 1-8	30,000	2041-01-22	2.034	CALL
2021-01-22	KHFC MBS 2021-02 1-9	10,000	2051-01-22	2.024	CALL
2021-01-22	KHFC MBS 2021-02 2-1	600	2052-01-22	13.324	CALL
2021-02-05	KHFC MBS 2021-03 1-1	164,900	2022-02-05	0.866	
2021-02-05	KHFC MBS 2021-03 1-2	170,000	2023-02-05	1.009	
2021-02-05	KHFC MBS 2021-03 1-3	220,000	2024-02-05	1.161	
2021-02-05	KHFC MBS 2021-03 1-4	500,000	2026-02-05	1.514	CALL
2021-02-05	KHFC MBS 2021-03 1-5	230,000	2028-02-05	1.694	CALL
2021-02-05	KHFC MBS 2021-03 1-6	180,000	2031-02-05	1.974	CALL
2021-02-05	KHFC MBS 2021-03 1-7	100,000	2036-02-05	2.034	CALL
2021-02-05	KHFC MBS 2021-03 1-8	30,000	2041-02-05	2.086	CALL
2021-02-05	KHFC MBS 2021-03 1-9	10,000	2051-02-05	2.114	CALL
2021-02-05	KHFC MBS 2021-03 2-1	400	2052-02-05	13.414	CALL
2021-02-19	KHFC MBS 2021-04 1-1	156,300	2023-02-19	1.023	CALL
2021-02-19	KHFC MBS 2021-04 1-2	330,000	2026-02-19	1.524	CALL
2021-02-19	KHFC MBS 2021-04 1-3	230,000	2031-02-19	2.067	CALL
2021-02-19	KHFC MBS 2021-04 1-4	80,000	2041-02-19	2.193	CALL
2021-02-19	KHFC MBS 2021-04 2-1	1,500	2042-02-19	13.501	CALL
2021-03-12	KHFC MBS 2021-05 1-1	162,300	2022-03-12	0.883	
2021-03-12	KHFC MBS 2021-05 1-2	170,000	2023-03-12	1.125	
2021-03-12	KHFC MBS 2021-05 1-3	240,000	2024-03-12	1.361	
2021-03-12	KHFC MBS 2021-05 1-4	510,000	2026-03-12	1.904	CALL
2021-03-12	KHFC MBS 2021-05 1-5	250,000	2028-03-12	2.034	CALL
2021-03-12	KHFC MBS 2021-05 1-6	200,000	2031-03-12	2.294	CALL
2021-03-12	KHFC MBS 2021-05 1-7	110,000	2036-03-12	2.364	CALL
2021-03-12	KHFC MBS 2021-05 1-8	40,000	2041-03-12	2.355	CALL
2021-03-12	KHFC MBS 2021-05 1-9	10,000	2051-03-12	2.355	CALL
2021-03-12	KHFC MBS 2021-05 2-1	400	2052-03-12	13.649	CALL
2021-03-26	KHFC MBS 2021-06 1-1	162,500	2022-03-26	0.913	
2021-03-26	KHFC MBS 2021-06 1-2	190,000	2023-03-26	1.096	
2021-03-26	KHFC MBS 2021-06 1-3	240,000	2024-03-26	1.302	
2021-03-26	KHFC MBS 2021-06 1-4	530,000	2026-03-26	1.876	CALL
2021-03-26	KHFC MBS 2021-06 1-5	260,000	2028-03-26	2.076	CALL
2021-03-26	KHFC MBS 2021-06 1-6	200,000	2031-03-26	2.302	CALL
2021-03-26	KHFC MBS 2021-06 1-7	110,000	2036-03-26	2.372	CALL
2021-03-26	KHFC MBS 2021-06 1-8	40,000	2041-03-26	2.321	CALL
2021-03-26	KHFC MBS 2021-06 1-9	10,000	2051-03-26	2.296	CALL
2021-03-26	KHFC MBS 2021-06 2-1	400	2052-03-26	13.596	CALL

[참고] 2021년 1분기 주요 그룹별 회사채 발행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현대자동차	3,420,000	19	8.93
2	신한금융	3,190,000	17	8.33
3	KB금융	2,990,000	14	7.81
4	SK	2,980,000	9	7.78
5	롯데	2,810,000	14	7.34
6	LG	1,860,000	4	4.86
7	하나금융	1,680,000	9	4.39
8	우리금융	1,550,000	10	4.05
9	삼성	1,380,000	14	3.60
10	BNK금융	1,070,000	13	2.79
11	NH농협금융	970,000	6	2.53
12	한국투자금융	810,000	6	2.12
13	미래에셋	760,000	5	1.98
14	산은금융	720,000	6	1.88
15	네이버	700,000	1	1.83
15	현대중공업	700,000	2	1.83
17	메리츠금융	670,000	4	1.75
18	애큐온캐피탈	640,000	6	1.67
19	JB금융	600,000	5	1.57
19	GS	600,000	2	1.57
21	DGB금융	580,000	4	1.51
22	CJ	450,000	2	1.18
23	넷마블	420,000	1	1.10
24	한국전력공사	410,000	2	1.07
25	KT	400,000	1	1.04
26	포스코	380,000	2	0.99
27	신세계	370,000	2	0.97
27	중소기업은행	370,000	4	0.97
29	두산	326,000	2	0.85
30	한국캐피탈	325,000	5	0.85
31	오케이금융	294,000	11	0.77
32	다우키움	284,500	10	0.74
33	한화	270,000	2	0.71
34	한국증권금융	250,000	1	0.65
35	여천NCC	230,000	1	0.60
36	연합자산관리	190,000	1	0.50
37	LS	180,000	2	0.47
38	한솔	170,000	2	0.44
39	현대백화점	150,000	1	0.39
39	한라	150,000	1	0.39
39	대상	150,000	1	0.39
42	한진	144,000	1	0.38
43	HDC	140,000	2	0.37
44	RCI Banque	130,000	2	0.34
45	하이트진로	124,000	1	0.32
46	대성	110,000	2	0.29
47	DL	100,000	1	0.26
47	한신공영	100,000	1	0.26
47	삼천리	100,000	1	0.26
47	메르세데스벤츠	100,000	1	0.26
51	효성	98,000	1	0.26
52	세아	80,000	1	0.21
53	DB	50,000	1	0.13
54	오릭스캐피탈코리아	40,000	1	0.10
총합계		37,765,500	240	100.00

[참고] 2021년 1분기 기업별 회사채 발행현황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점유율(%)
1	LG화학	1,200,000	1	3.13
2	신한캐피탈	1,080,000	6	2.82
3	신한금융지주	1,010,000	3	2.64
4	KB금융지주	990,000	3	2.59
5	신한카드	950,000	7	2.48
5	우리금융캐피탈	950,000	5	2.48
7	하나캐피탈	940,000	5	2.45
8	KB캐피탈	890,000	4	2.32
9	KB국민카드	880,000	6	2.30
10	BNK캐피탈	870,000	11	2.27
11	현대카드	850,000	3	2.22
12	삼성카드	820,000	13	2.14
13	산은캐피탈	720,000	6	1.88
14	네이버	700,000	1	1.83
15	현대커머셜	680,000	9	1.78
16	애큐온캐피탈	640,000	6	1.67
17	롯데카드	630,000	3	1.65
18	우리카드	600,000	5	1.57
18	JB우리캐피탈	600,000	5	1.57
20	롯데캐피탈	590,000	4	1.54
21	메리츠캐피탈	570,000	3	1.49
22	삼성증권	560,000	1	1.46
23	한국투자캐피탈	530,000	5	1.38
24	하나금융지주	520,000	2	1.36
25	SK이노베이션	500,000	1	1.31
25	현대제철	500,000	1	1.31
25	SK E&S	500,000	1	1.31
28	DGB캐피탈	480,000	3	1.25
29	NH농협캐피탈	460,000	4	1.20
30	현대캐피탈	450,000	3	1.18
31	엠캐피탈	425,000	5	1.11
32	코웨이	420,000	1	1.10
33	롯데지주	400,000	1	1.04
33	LG유플러스	400,000	1	1.04
33	현대자동차	400,000	1	1.04
33	NH농협금융지주	400,000	1	1.04
33	GS칼텍스	400,000	1	1.04
33	KT	400,000	1	1.04
33	현대오일뱅크	400,000	1	1.04
40	IBK캐피탈	370,000	4	0.97
41	미래에셋캐피탈	360,000	3	0.94
42	두산인프라코어	326,000	2	0.85
43	한국캐피탈	325,000	5	0.85
44	SK	320,000	1	0.84
45	SK텔레콤	310,000	1	0.81
46	미래에셋증권	300,000	1	0.78
46	SK렌터카	300,000	1	0.78
46	호텔롯데	300,000	1	0.78
46	SK건설	300,000	1	0.78
46	SK머티리얼즈	300,000	1	0.78
46	한국남동발전	300,000	1	0.78
46	현대중공업	300,000	1	0.78
46	SK가스	300,000	1	0.78
46	기아자동차	300,000	1	0.78
55	오케이캐피탈	294,000	11	0.77
56	키움캐피탈	284,500	10	0.74
57	한국투자증권	280,000	1	0.73
58	신세계	270,000	1	0.71
59	롯데칠성음료	250,000	1	0.65
59	롯데렌탈	250,000	1	0.65
59	한국증권금융	250,000	1	0.65
59	CJ	250,000	1	0.65
63	현대트랜시스	240,000	1	0.63
64	KB증권	230,000	1	0.60
64	여천NCC	230,000	1	0.60
66	하나카드	220,000	2	0.57
67	CJ대한통운	200,000	1	0.52
67	포스코인터내셔널	200,000	1	0.52
67	GS	200,000	1	0.52
67	BNK금융지주	200,000	2	0.52
67	롯데건설	200,000	1	0.52
72	연합자산관리	190,000	1	0.50
72	LG헬로비전	190,000	1	0.50
74	포스코건설	180,000	1	0.47
75	대상	150,000	1	0.39
75	한라홀딩스	150,000	1	0.39
75	SK매직	150,000	1	0.39
75	신한금융투자	150,000	1	0.39
75	한화	150,000	1	0.39
75	현대백화점	150,000	1	0.39
75	LS전선	150,000	1	0.39
82	한진칼	144,000	1	0.38

83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30,000	2	0.34
84	하이트진로	124,000	1	0.32
85	롯데글로벌로지스	120,000	1	0.31
85	한화건설	120,000	1	0.31
87	NH투자증권	110,000	1	0.29
87	에스이그린에너지	110,000	1	0.29
89	한솔제지	100,000	1	0.26
89	HDC현대산업개발	100,000	1	0.26
89	대림	100,000	1	0.26
89	한신공영	100,000	1	0.26
89	BC카드	100,000	1	0.26
89	메리츠증권	100,000	1	0.26
89	신세계푸드	100,000	1	0.26
89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00,000	1	0.26
89	미래에셋자산운용	100,000	1	0.26
89	삼천리	100,000	1	0.26
89	DGB금융지주	100,000	1	0.26
100	효성첨단소재	98,000	1	0.26
101	세아제강	80,000	1	0.21
102	한솔케미칼	70,000	1	0.18
102	팜한농	70,000	1	0.18
102	롯데푸드	70,000	1	0.18
105	대성에너지	60,000	1	0.16
106	DB캐피탈	50,000	1	0.13
106	대성홀딩스	50,000	1	0.13
108	오릭스캐피탈코리아	40,000	1	0.10
108	HDC현대EP	40,000	1	0.10
110	가온전선	30,000	1	0.08
총합계		38,290,500	246	100.00

1st quarter of 2021
thebell League Table

Korean Paper

Deal list 집계기준

-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자의 해외법인 포함)가 해외 시장에서 발행한 모든 채권(공모/사모 포함, 구조화채권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발행액이나 표시통화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자의 해외법인 포함)가 해외 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 커버드본드를 포함하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한다.
- 주관실적은 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하며 joint manager 등 여타 자문사에게는 배분하지 않는다.
- 주관실적과 수수료실적은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며, 非달러 표시 채권의 경우 납입일의 USD 대비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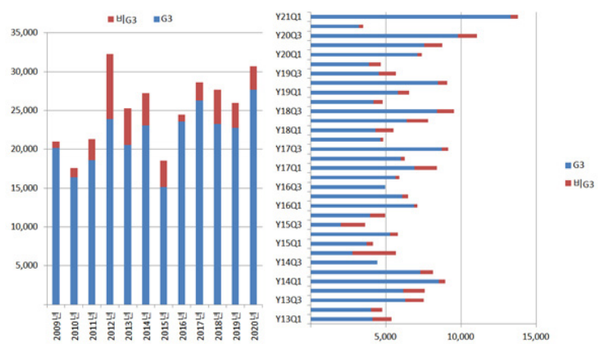
Overview

한국물(Korean Paper) 시장 호황은 2021년 연초부터 거셌음. 글로벌 채권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역대급 호조를 이어갔음.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 한국물 역시 1분기에만 137억달러가 발행되는 등 압도적 물량을 쏟아냈음. 더벨 리그테이블 집계 이래 분기 기준 최대 발행량.

발행 규모 10억달러 이상의 빅딜이 대거 등장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음. 현대캐피탈아메리카를 시작으로 KDB산업은행, SK하이닉스, SK배터리아메리카,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조달량을 끌어올렸음. SK배터리아메리카와 네이버 등 민간기업 데뷔전도 시장 확대에 일조.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채권의 시장 안착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

한국계 공모채권 해외 발행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21년 3월 31일 기준)



◇발행량 최대, 투자수요도 폭발…발행사 다변화 잰걸음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공모 한국물 발행 규모는 137억 8747만달러로 집계. 전년 동기(74억 841만달러) 대비 86% 증가한 수치. 올 1분기 한국물 시장은 더벨 리그테이블 집계 이래 최대 발행량 기록. 분기 발행량이 1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

연초부터 빅딜이 대거 등장한 점 등이 주효. 1월 현대캐피탈아메리카(27억달러)를 시작으로 한달간 KDB산업은행(15억달러), SK하이닉스(25억달러), SK배터리아메리카(10억달러) 등의 대규모 딜이 몰아쳤음. 이후에도 한국수출입은행(15억달러)과 KDB산업은행(12억달러) 등 빅딜 행진이 이어졌음.

발행사 다변화 역시 물량 확대를 이끌었음. SK배터리아메리카(SK이노베이션 보증)와 우리카드, 네이버 등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물 시장을 찾았음. SK배터리아메리카와 네이버 등 국내 민간기업은 최근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외화채 시장으로 조달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

한국물 여전채 시장 성장에도 속도가 붙었음. 우리카드는 올 3월 2억달러 규모의 포모사본드를 찍어 공모 한국물 시장에 입성. 코로나19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인한 국내 카드사들은 외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이어 선순위채권으로 조달처를 넓히고 있음. 이번 발행으로 한국물 조달 여전사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두 곳으로 늘었음.

글로벌 투자 열기 또한 한국물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 글로벌 채권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한국물 시장을 찾은 모든 이슈어가 발행액을 뛰어넘는 주문 확보. 연이은 빅딜 행진에도 물량을 소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음. AA급 국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한국물이 높은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 역시 투심을 북돋았음.

[참고] 2021년 1분기 ESG 채권 딜리스트

납입일자	발행사	유형	만기	발행통화	발행금액 (발행통화기준)	발행금액 (달러기준)	주관사(북러너)
2021-01-19	KDB산업은행	그린본드	3년5개월	USD	700,000,000	700,000,000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JP모간, 쏘시에떼제너랄, SC, UBS, KDB아시아
2021-01-19	SK하이닉스	그린본드	10년	USD	1,000,000,000	1,000,000,000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씨티, CA, CS, HSBC, JP모간
2021-01-26	SK배터리아메리카	그린본드	3년/5년	USD	1,000,000,000	1,000,000,000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씨티, CA, HSBC
2021-01-26	하나은행	소셜 커버드본드	5년	EUR	500,000,000	607,150,000	BNP파리바, 씨티, CA, JP모간, 쏘시에떼제너랄
2021-01-27	한국남부발전	그린본드	5년	USD	450,000,000	450,000,000	씨티, CA, 미즈호증권, UBS
2021-02-01	우리은행	지속가능채권	5년	USD	550,000,000	550,000,000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씨티, HSBC, 쏘시에떼제너랄, SC
2021-02-08	현대캐피탈	그린본드	5년	USD	600,000,000	600,000,000	BoA메릴린치, CA, HBSC, SMBC닛코, 쏘시에떼제너랄
2021-03-09	KDB산업은행	그린본드	3년(FRN)	USD	300,000,000	300,000,000	BoA메릴린치, 씨티, CS, JP모간, 미즈호증권, KDB아시아
2021-03-23	우리카드	소셜 포모사본드	3년	USD	200,000,000	200,000,000	CA, HBSC, 쏘시에떼제너랄
2021-03-29	네이버	지속가능채권	5년	USD	500,000,000	500,000,000	모건스탠리, 미래에셋증권

지속된 저금리 기류로 발행사들은 비용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렸음. 조달비용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향세를 거듭한 데다 가산금리(스프레드) 축소세가 지속돼 AA급 한국물 이슈어는 0%대 쿠폰금리(5년물 기준)로 조달을 이어갔음. 올 1분기 발행 호조가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

◇ESG 안착, 그린본드 부상…달러화 편중 심화, 이종통화 미미

ESG채권 시장 성장도 견조. 2021년 1분기 발행된 14건의 딜 중 10건이 ESG채권으로 발행. 이슈어들은 발행 물량의 전체 혹은 일부를 ESG로 찍는 등 사회적책임투자(SRI) 기류에 동참하는 데 앞장섰음. 올 1분기 ESG 한국물 발행량은 59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43% 비중.

특히 그린본드(green bond)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음. 올 1분기 발행한 10건의 ESG 한국물 중 5건이 그린본드 형태. KDB산업은행(2건)을 시작으로 SK하이닉스와 SK배터리아메리카, 한국남부발전, 현대캐피탈 등이 그린본드를 찍었음. 국내 기업이 최근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사업으로 영역 확장에 나선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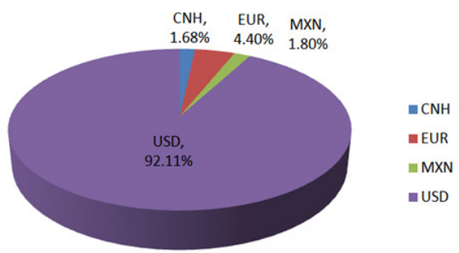
앞서 한국물 ESG 채권 발행이 소셜본드(social bond)와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에 집중됐던 것과 대조적. 물론 소셜본드와 지속가능채권도 꾸준히 등장.

올 1분기 하나은행과 우리카드는 각각 유로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과 포모사본드를 소셜본드로 발행. 우리은행과 네이버는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달러채를 찍었음.

달러화 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 2021년 1분기 발

2021년 1분기 해외채(공모) 발행 통화 비중

(달러화 환산 기준)



행량의 92%가 달러채로 구성됐음. 달러채 스프레드 등이 하락 기조를 이어가자 이종통화 시장의 금리 경쟁력이 희미해졌기 때문. 달러채 시장이 호조를 이어가는 한 이종통화 존재감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전망.

다만 커버드본드 조달 수요와 국책은행의 통화 다변화 정책 등이 맞물려 소규모 이종통화 채권 발행은 지속. 첫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선 하나은행은 유로화 시장을 찾아 2021년 이종통화채 발행의 시작을 알렸음.

한국수출입은행은 멕시코페소채권과 딤섬본드(역외위안화채권) 조달로 통화 다양성을 높였음. 공모 한국물 데뷔전에 나선 우리카드는 대만 시장을 찾아 2021년 포모사본드 조달 포문을 열었음.

2021년 1분기 국내기업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달러)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1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1,718,453,810	8	12.46%
2	BNP파리바	1,620,239,524	7	11.75%
3	HSBC	1,585,622,332	8	11.50%
4	JP모간	1,278,572,857	5	9.27%
5	크레디아그리콜	1,227,739,524	7	8.90%
6	BoA메릴린치	1,183,095,238	6	8.58%
7	스탠다드차타드	671,846,879	4	4.87%
8	소시에테제네랄	614,049,048	5	4.45%
9	미즈호증권	562,500,000	3	4.08%
10	크레디트스위스	557,142,857	2	4.04%
11	SMBC닛코	505,714,286	2	3.67%
12	KDB아시아	414,285,714	2	3.00%
13	MUFG증권	385,714,286	1	2.80%
13	로이드	385,714,286	1	2.80%
15	UBS	326,785,714	2	2.37%
16	KB증권	250,000,000	1	1.81%
16	모건스탠리	250,000,000	1	1.81%
16	미래에셋증권	250,000,000	1	1.81%
총합계		13,787,476,353	66	100.00%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2021년 1분기 국내기업 G3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달러)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1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1,718,453,810	8	12.91%
2	BNP파리바	1,620,239,524	7	12.18%
3	JP모간	1,278,572,857	5	9.61%
4	크레디아그리콜	1,227,739,524	7	9.23%
5	HSBC	1,221,190,476	6	9.18%
6	BoA메릴린치	1,183,095,238	6	8.89%
7	소시에테제네랄	614,049,048	5	4.61%
8	미즈호증권	562,500,000	3	4.23%
9	크레디트스위스	557,142,857	2	4.19%
10	스탠다드차타드	555,952,381	3	4.18%
11	SMBC닛코	505,714,286	2	3.80%
12	KDB아시아	414,285,714	2	3.11%
12	MUFG증권	385,714,286	1	2.90%
12	로이드	385,714,286	1	2.90%
15	UBS	326,785,714	2	2.46%
16	KB증권	250,000,000	1	1.88%
16	모건스탠리	250,000,000	1	1.88%
16	미래에셋증권	250,000,000	1	1.88%
총합계		13,307,150,000	63	100.00%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2021년 1분기 국내기업 非G3 해외채(공모) 발행 주관 순위

(단위:달러)

순위	주관사	주관금액	건수	점유율
1	HSBC	364,431,855	2	75.87%
2	스탠다드차타드	115,894,498	1	24.13%
총합계		480,326,353	3	100.00%

* 국내 거주자(해외법인 포함)가 해외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한 채권이 대상.
* 커버드본드는 포함,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주관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 주관의 경우 주관실적과 수수료를 참여 주관사에게 동등 배분.
* 주관실적은 북러너(Bookrunner) 자격이 있는 곳에만 배분.
* 실적은 달러화(USD)로 표시. 非달러채권은 납입일의 USD대비 환율로 환산.

[참고] 2021년 1분기 한국물(공모) 딜리스트

발행일자 (납입일)	발행사	유형	발행 통화	발행금액 (발행통화기준)	발행금액 (달러기준)	주관사(북러너)
2021-01-08	현대캐피탈아메리카	글로벌본드	USD	2,700,000,000	2,700,000,000	BNP파리바, 씨티, HBSC, JP모간, 로이드, MUFG증권, SMBC 닛코
2021-01-19	KDB산업은행	글로벌본드	USD	1,500,000,000	1,500,000,000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JP모간, 쏘시에떼제너랄, SC, UBS, KDB아시아
2021-01-19	SK하이닉스	글로벌본드	USD	2,500,000,000	2,500,000,000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씨티, CA, CS, HSBC, JP모간
2021-01-26	SK배터리아메리카	유로본드	USD	1,000,000,000	1,000,000,000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씨티, CA, HSBC
2021-01-26	하나은행	커버드본드	EUR	500,000,000	607,150,000	BNP파리바, 씨티, CA, JP모간, 쏘시에떼제너랄
2021-01-27	한국남부발전	글로벌본드	USD	450,000,000	450,000,000	씨티, CA, 미즈호증권, UBS
2021-01-26	한국수출입은행	멕시코페소채권	MXN	5,000,000,000	248,537,357.65	HSBC
2021-02-01	우리은행	글로벌본드	USD	550,000,000	550,000,000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씨티, HSBC, 쏘시에떼제너랄, SC
2021-02-08	현대캐피탈	글로벌본드	USD	600,000,000	600,000,000	BoA메릴린치, CA, HBSC, SMBC닛코, 쏘시에떼제너랄
2021-02-09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본드	USD	1,500,000,000	1,500,000,000	BNP파리바, 씨티, CA, KB증권, 미즈호증권, SC
2021-03-03	한국수출입은행	딤섬본드	CNH	1,500,000,000	231,788,995.37	HSBC, SC
2021-03-09	KDB산업은행	글로벌본드	USD	1,200,000,000	1,200,000,000	BoA메릴린치, 씨티, CS, JP모간, 미즈호증권, KDB아시아
2021-03-23	우리카드	포모사본드	USD	200,000,000	200,000,000	CA, HBSC, 쏘시에떼제너랄
2021-03-29	네이버	유로본드	USD	500,000,000	500,000,000	모건스탠리, 미래에셋증권

1st quarter of 2021
thebell League Table

Mergers & Acquisitions

Deal list 집계기준

- 2개 이상 거래주체(법인, 개인 등)의 경영 참여 및 사업 · 영업 · 자산 양수도 거래(자원개발 분야 포함)를 집계대상으로 삼는다.
  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자가 자산 본래의 용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한다.
  경영 참여와는 관련이 없는 주식거래(IPO 및 유상증자 포함) 혹은 채권거래(CB · BW포함) 등은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참여의 조건은 경영권 지분 인수 및 이사회 참여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 참여라고 인정될 시에는 기업 인수에 포함한다.
- 거래대상 또는 매각주체(합병주체) 또는 인수주체(피합병주체) 중 1곳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거래만을 집계한다. 거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크로스보더 거래로 분류한다.
- 거래 성격에 따라 '기업인수'(Corporate Acquisition), '기업합병 · 분할'(Corporate Merger & Consolidation, Split), 'SOC · 부동산'(SOC & Real Estate)으로 나눠 집계한다.
- 'SOC · 부동산'(SOC & Real Estate)은 경영 참여와는 별도로 거래되는 SOC, 부동산, 건물 · 토지 등의 거래를 의미한다.
  단 골프장, 호텔 등 거래 대상 부동산의 본래적 용법을 계속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 거래 형태가 아니라도 M&A 거래로 인정한다.
- 자원개발권 또는 수익권 향유를 계속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지분 거래는 원칙적으로 M&A 거래로 인정한다.
- '거래시기'에 따라 각각의 딜을 '공표거래'(Announced Deal)와 '완료거래'(Completed Deal)로 분류한다.
  - '공표거래'는 잔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집계기간 중 '공표일자'가 확정된 거래를 의미한다.
  - '공표일자'란 거래대상자가 확정된 시기, 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이나 본계약 체결일 등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이나 합병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일을 의미한다.
  - '완료거래'는 공표일과 무관하게 집계기간 중 '완료일자'가 확정된 거래를 의미한다.
  - '완료일자'란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 합병거래의 경우 합병기일을 의미한다.
- 거래금액은 원화로 집계하며 집계되는 거래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거래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환율 또는 계약체결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 주식회사의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된 주식 지분의 가치를 의미한다.
  - 사업 · 영업 · 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양수자가 양수의 댓가로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 지분과 부채가 함께 거래된 경우 부채는 거래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 내용에 부채 상환을 예정한 경우에는 부채도 거래금액에 포함한다.
  - 기업합병 거래의 경우 피합병기업의 지분가치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 기업분할 거래의 경우 분할되어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가치를 거래금액으로 본다.

League Table 작성기준

- 금융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으로 구분하고 '공표거래'와 '완료거래'를 분리해 리그테이블을 집계한다.
- 금융자문은 자문사가 담당한 거래의 '금액'을 실적집계 1순위 기준으로 삼는다.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은 자문사가 담당한 거래의 '건수'와 '금액'을 동등한 비율로 실적집계에 반영한다.
- 계열사나 관계사간 M&A 거래는 리그테이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문회사가 M&A 거래 당사자와 계열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 경우 리그테이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계법인이 거래 일방의 금융자문과 회계자문을 동시에 맡는 경우, 회계자문을 금융자문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회계자문 실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수의 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자문을 맡았을 경우, 전체 거래금액(또는 거래건수)을 자문회사 수로 나눈 금액을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문회사별 업무 관여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을 통해 실적금액 반영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자문계약을 맺었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확정해 MOU 이상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거래의 진실성과 자문역할에 대한 평가는 자문사를 고용한 의뢰기업(의뢰인) 의사를 우선 반영한다.
- 자문계약 관계가 실재하더라도 의뢰기업(의뢰인)이 자문역할을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표거래'가 집계기간내 파기될 경우 시기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내역은 각주 등으로 별도 표기한다.
- 분기별 집계실적은 반기 및 연간실적을 집계하면서 거래성사여부,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재확인해 이를 최종 반영한다.

Overview

2021년 1분기 M&A 시장은 회복되는 분위기가 감지됨. 완료기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음.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딜은 최종 클로징을 통해 1분기 M&A 시장의 랜드마크 딜로 기록. PEF들은 부동산이나 JV보다는 기업 인수 및 매각에 집중하는 모습. 금융자문 1위에는 모건스탠리가 배달의민족 딜 한건만으로 올랐음. 회계자문의 경우 삼일PwC가 오름. 법률자문은 김앤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

[총론] 팬데믹 지속에도 거래규모 예년수준 되찾았다

더벨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M&A 시장이 회복세를 그리고 있음. 1분기 완료 기준 기업 인수·매각 M&A 거래규모는 총 14조9675억원, 건수로는 95건을 기록. 지난해 1분기 거래규모는 14조7035억원, 거래건수는 109건. 규모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거래건수는 대폭 줄어든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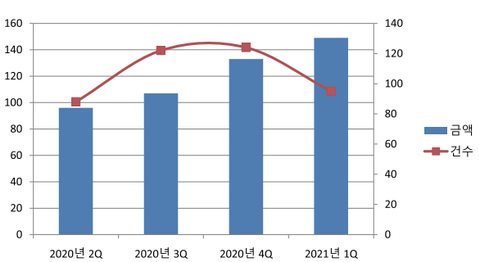
올해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거래는 랜드마크 딜로 꼽힘. 딜 규모가 4조8000억원에 달해 전체 거래의 30% 이상을 차지했음. 이밖에 MBK파트너스의 BHC 재투자(1조5500억원), LG화학의 편광판사업부 매각(1조3211억원) 등이 1분기 이뤄진 주요 조 단위 딜로 기록.

조인트벤처(JV)나 합병, 부동산 등의 거래를 모두 포함한 1분기 시장 규모는 35조1223억원(121건)이었다. 전년동기(31조623억원)대비 4조원 가량 규모가 커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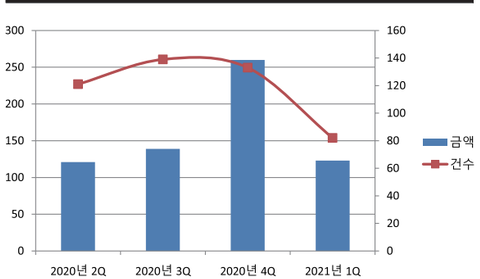
지난 1분기 중 기업 인수매각 관련 거래에서 PEF가 관여한 딜은 4조9808억원 규모로 전체의 33.28%를 차지했음. 숫자 상으로는 전년동기인 51%에 비해 다소 줄어든 모습. SI간 거래인 배달의민족 거래가 워낙 규모가 컸던 탓에 PEF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PEF가 관여한 딜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MBK파트너스의 BHC 재투자 건임. 이외 스카이레이크의 두산솔루스 인수(7000억원), 글래우드PE의 CJ올리브영 소수지분 투자(4000억원)가 있음.

금융자문 1위에는 모건스탠리, 회계자문에는 삼일PwC, 법률자문은 김앤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

시기별 기업인수 시장규모 (Completed)



시기별 기업인수 시장규모 (Announced)



[합병·분할(JV포함)] 네이버·대림 재정비 활발… 김앤장 사업구조재편 자문 특수

올초 국내 합병·분할·조인트벤처(JV) 자문시장의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편'과 '전략적 협업'으로 압축됨. 주요 기업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를 손보거나 유수의 기업과 손을 맞잡으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갔음.

2021년 1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완료기준 합병·분할·JV 시장규모는 17조7330억원, 거래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났음. 전년 동기대비 거래건수는 7건이 줄었지만 거래금액은 85.9% 증가했음.

2021년 1분기 합병·분할·조인트벤처(JV) 부문에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전략적 협업이 자문사 순위 변동에 영향을 줬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새로운 지주회사를 세우는 수순이 마무리되며,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자문실적을 쌓았음.

이외에도 김앤장은 DL그룹(옛 대림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활약. 김앤장은 DL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여러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제공, 경쟁 로펌과 합병·분할·JV 분야 법률자문 레코드를 큰 격차로 따돌렸음.

2021년 1분기 상위 10개 거래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매각자	인수자	거래금액	성격
1	우아한형제들 (지분 100%(FI 87%,개인 13%))	우아한형제들, 힐하우스캐피탈, 알토스벤처스 외	Delivery Hero	4,800,000	
2	글로벌레스토랑그룹 (지분 100%)	MBK Partners	MBK Partners	1,550,000	
3	LG화학 (편광판 사업부 지분70%)	LG화학	Shanshan	1,321,100	크로스보더
4	GS파워 (주식 50%)	KB GwS 사모 증권 투자신탁	GS에너지	710,000	
5	솔루스첨단소재 (구주 52.93%)	두산, 개인주주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700,000	
6	두산모트롤 (구주 100%)	두산	웰투시인베스트먼트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엄)	453,000	
7	CJ올리브영 (신주+구주 25%)	CJ올리브영, 개인주주들	글랜우드 PE	414,000	
8	티몬 (EB)	티몬	앵커에쿼티파트너스 외	305,000	
9	호반 (골프장운영)	호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57,600	
10	금호리조트(구주 66.7%) 금호홀딩스(구주 39.3%)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엔비화학	255,400	

(완료 기준)

법무법인 세종은 자문건수 면에서는 김앤장과 차이를 보였으나 비교적 굵직한 거래를 수임해 단번에 2위로 뛰어올랐음. 법무법인 세종은 카카오페이지가 카카오엠을 합병하는 과정을 도왔으며, 해당 거래규모는 2조6250억원으로 상위 3위에 랭크됐음.

법무법인 광장은 JTBC스튜디오가 제이콘텐트리스튜디오를 합병하는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이외에도 광장은 두산에서 두산머티리얼핸들링솔루션을 분할(3225억원)하는 법률자문사로 이름을 올려 하반기 자문순위 변화가 예상됨. 율촌은 케이엔더블유가 지아이매터리얼스를 합병하는 과정을 도왔음.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은 원익큐엔씨가 나노원을 합병하는 과정에 법률서비스를 제공.

[금융자문] '배민 매각 완료'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초반 러시

2021년 1분기 인수·합병(M&A) 금융자문 부문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M&A로 희비가 엇갈렸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이 한 건의 자문 실적을 기록한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는 조 단위 딜의 위력을 과시하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음. 외국계 하우스의 강세가 계속된 가운데 건수를 앞세운 삼일PwC·삼정KPMG의 선전도 눈에 띔.

2021년 1분기 완료(잔금납입) 기준 4조8000억원의

M&A 금융자문 실적을 기록. 모건스탠리의 금액 기준 점유율은 29.45%로 2위 골드만삭스에 3.83% 포인트 앞섰음. 외국계 하우스 두 곳이 빠르게 치고 나간 가운데 삼일PwC가 3위를 차지. 삼일PwC는 △두산그룹의 솔루스첨단소재(옛 두산솔루스) 매각(거래가 7000억원) △호반그룹의 스카이밸리CC 매각(2576억원) 등에 자문사로 참여, 총 1조6803억원의 자문 실적을 쌓음.

3~5위에 오른 삼일PwC · CS · HSBC 간 자문 실적(금액 기준) 차이는 2000억원 안팎임. 2021년 남은 세 개 분기 동안의 성과에 따라 순위가 변동할 여지는 충분. 세 하우스의 순위 변화 또한 리그테이블의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음.

[법률자문] 김앤장 1위 수성…태평양 자존심 회복 '눈길'

김 · 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1분기 인수합병(M&A) 법률자문에서 선두를 지킴. 조단위 딜을 자문하며 2위권을 여유롭게 따돌림. 완료기준 18건 · 조정점유율 22.64%로 법률자문 분야 선두에 안착했음.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기현과 세움, 별 등 소형 로펌의 10위권 진입이 눈길을 끌었음.

김앤장은 조단위 대형 거래로 손꼽히던 우아한형제들 매각 · 인수(각 1조6000억원)자문과 글로벌레스토랑그룹 경영권 매각 자문(1조5500억원)을 각각 수행했음.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두산그룹의 계열사 매각도 맡음.

2위에 오른 광장은 완료기준 18건 · 조정점유율 13.36%를 기록. 조 단위 자문은 없지만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며 실적 방어에 성공.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솔루스첨단소재 인수(7000억원), GS파워 지분 매각(7100억원), STX조선해양 매각(2500억원), CJ올리브영 지분 매각(2070억원) 등을 도왔음.

태평양은 3위에 오름. 우아한형제들 인수(1조6000억원), LG화학 편광판 사업부 매각(1조3211억원)자문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림. 율촌은 최근 상승 흐름이 다소 간 꺾이며 4위에 그쳤음. 세종은 5위. KL파트너스가 6위를 기록했으며 화우, 기현, 세움, 별이 그 뒤를 이었음.

[회계자문] 삼일 1위 '산뜻한 출발'…주요딜 모두 쓸어담았다

삼일PwC가 2021년 1분기 인수 · 합병(M&A) 회계자문 분야 1위를 차지.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으로 1위에 올랐던 삼정KPMG는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숨고르기에 나섰음. 딜로이트안진이 3위, 언스트앤영(EY)한영이 4위를 각각 기록. 중소회계법인 영앤진회계법인이 5위로 깜짝 등장.

삼일은 조정점유율 52.93%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자문 건수와 자문금액 모두 경쟁자들을 압도했음. 삼일PwC이 수임한 거래금액은 총 14조359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삼정KPMG이 기록한 2조9656억원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규모. 전체 회계자문 금액 실적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67.40%를 기록했음.

큰 금액 차이로 선방한 건 우아한형제들 매각 거래가 결정적이었음.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콰이어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보유하고 있던 우아한형제 제분 87%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하는 거래로, 거래가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랜드마크 딜 중 하나. 삼일PwC는 이 거래에서 인수 측과 매각 측 회계자문을 모두 단독으로 수임하며 총 9조6000억원을 고스란히 자문실적에 포함시켰음.

삼정KPMG는 1분기 2위로 내려앉으며 다소 아쉬운 시작을 보였음. 총 15건을 자문했으며, 총 거래규모는 2조9656억원이었다. 조정점유율은 18.50%를 기록. 글로벌레스토랑그룹 거래에서 삼일PwC의 카운터파트인 매각 측 회계자문을 도와 1조5500억원을 실적에 추가. CJ올리브영 지분 매각 거래에서도 삼일PwC의 상대편으로 나서 4140억원을 실적에 추가.

3위 딜로이트안진은 총 9건의 자문을 수임했으며 총 1조5928억원의 금액실적을 기록했다. 조정점유율은 10.66%. EY한영은 조정점유율 8.93%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음. 눈에 띄는 곳은 5위에 이름을 올린 영앤진회계법인. 영앤진회계법인은 여주스카이밸리골프장 딜 하나만으로 리그테이블 상위권에 진입했음.

[부동산·SOC] 아물지 않은 코로나 상흔…실물 시장은 여전히 '꽁꽁'

2021년 1분기 국내 부동산 거래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거래 규모와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들면서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짐.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주춤했던 지난해 2~3분기와 비교해도 올초 거래 규모와 건수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음.

1분기 부동산 · SOC(사회간접자본)거래 전체 시장 규모는 완료기준 14건 · 2조4217억원, 발표기준 14건 · 2조3912억원으로 집계됐음. 지난해 같은 기간 시장 규모(완료기준 22건 · 8조1937억원)에 비해 건수는 36%, 금액은 7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

법무법인 광장은 부동산 자문분야 1위에 올랐음. 한진그룹의 부산 소재 건물 및 토지 매각자문을 비롯해 총 3건의 거래에서 7000억원 이상의 완료 실적을 쌓음. 2위에 오른 김 · 장 법률사무소(김앤장)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논현 두산건설사옥 인수 자문 등 4건 가량의 자문 실적을 올림. 부동산 분야에서 꾸준한 1위를 수성했던 세종은 올 1분기 3위에 머물렀음.

1분기 완료기준 규모가 가장 컸던 거래는 한진그룹이 보유한 부산 범일동 부지를 대우건설이 인수한 거래(3070억).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자산 매각에 나선 한진은 범일동 일대 부지 3개 필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우건설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한진 측 법률자문은 광장이 맡았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서울 논현 두산건설사옥 매각 거래는 2위. 총 2362억원 규모인 해당 거래는 인수자인 이지스자산 측을 김앤장이, 매각 측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광장이 법률자문을 수행했음.

부동산 분야 거래에서 꾸준한 1위 자리를 수성하던 세종은 올해 1분기 3위에 그쳤음. 총 4건의 거래로 4600억원의 실적을 쌓음. 조정점유율은 21.58%로 1 · 2위에 오른 광장 및 김앤장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음. 4위는 법무법인 지평, 5위는 기현.

2021년 1분기 M&A 상위 10 거래

완료거래기준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인수자	금액	성격
1	우아한형제들 (지분 100%(FI 87%, 개인 13%))	Delivery Hero	4,800,000	
2	글로벌레스토랑그룹 (지분 100%)	MBK Partners	1,550,000	
3	LG화학 (편광판 사업부 지분70%)	Shanshan	1,321,100	크로스보더
4	GS파워 (주식 50%)	GS에너지	710,000	
5	솔루스첨단소재 (구주 52.93%)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700,000	
6	두산모트롤 (구주 100%)	웰투시인베스트먼트 (소시어스-웰투시 컨소시엄)	453,000	
7	CJ올리브영 (신주+구주 25%)	글랜우드 PE	414,000	
8	티몬 (EB)	앵커에쿼티 파트너스 외	305,000	
9	호반 (골프장운영)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257,600	
10	금호리조트(구주 66.7%) 금호홀딩스(구주 39.3%)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255,400	

발표거래기준 (단위 : 백만원)

순위	거래대상	인수자	금액	성격
1	하이퍼커넥트 (구주)	Match Group	1,930,448	
2	Plug Power Inc. (신주)	SK 외	1,635,985	
3	잡코리아 (지분 100%)	어피너티에쿼티 파트너스	900,000	
4	CJ Rokin Logistics and Supply Chain Co., Ltd. (구주 73.1%)	파운틴베스트 파트너스	872,737	크로스보더
5	두산인프라코어 (구주+신주)	현대중공업지주, KDB인베스트먼트	850,000	
6	Wattpad (구주 100%)	네이버	711,113	
7	현대글로벌서비스 (구주 38%)	KKR & Co. L.P.	646,000	
8	비엔엑스 (구주 14.26%+신주 40.51%)	네이버	411,884	
9	티몬(EB)	앵커에쿼티 파트너스 외	305,000	
10	에스케이티엔에스 (구주 100%)	알케미스트캐피탈 파트너스코리아	290,000	

2021년 1분기 기업인수 · 매각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모건스탠리	4,800,000	29.45	1
2	골드만삭스	4,176,000	25.62	1
3	삼일PwC	1,680,344	10.31	15
4	크레디트스위스	1,567,000	9.61	3
5	HSBC	1,321,100	8.11	1
6	삼정KPMG	814,773	5.00	13
7	JP모간	624,000	3.83	1
8	언스트앤영 한영	408,245	2.50	3
9	딜로이트 안진	304,560	1.87	3
10	신한금융투자	257,600	1.58	1
11	대신증권	121,600	0.75	2
12	KR&Partners	95,999	0.59	3
13	씨티글로벌마켓증권	45,205	0.28	1
14	한국산업은행	36,862	0.23	2
15	KB증권	28,000	0.17	1
16	선일회계법인	13,050	0.08	1
17	삼도회계법인	5,000	0.03	1
계		16,299,338	100.00	53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모건스탠리	5,764,170	41.18	5
2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635,985	11.69	1
3	삼정KPMG	1,596,904	11.41	14
4	UBS	1,120,000	8.00	2
5	딜로이트 안진	997,284	7.12	4
6	언스트앤영 한영	963,000	6.88	3
7	크레디트스위스	850,000	6.07	1
8	삼일PwC	829,156	5.92	9
9	대신증권	121,600	0.87	2
10	KB증권	52,750	0.38	1
11	한국산업은행	36,862	0.26	2
12	KR&Partners	26,000	0.19	2
13	삼도회계법인	5,000	0.04	1
계		13,998,711	100.00	47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14,359,894	67.40	25	38.46	52.93
2	삼정KPMG	2,965,687	13.92	15	23.08	18.50
3	딜로이트 안진	1,592,887	7.48	9	13.85	10.66
4	언스트앤영 한영	1,837,050	8.62	6	9.23	8.93
5	영앤진회계법인	257,600	1.21	1	1.54	1.37
6	대현 회계법인	91,245	0.43	1	1.54	0.98
7	회계법인 배율	37,300	0.18	1	1.54	0.86
7	회계법인 가현	37,300	0.18	1	1.54	0.86
9	현대 회계법인	30,000	0.14	1	1.54	0.84
10	회계법인 새길	24,861	0.12	1	1.54	0.83
11	정동회계법인	23,500	0.11	1	1.54	0.82
12	서우회계법인	20,800	0.10	1	1.54	0.82
13	선일회계법인	16,000	0.08	1	1.54	0.81
14	한울 회계법인	12,001	0.06	1	1.54	0.80
계		21,306,124	100.00	65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7,670,338	50.70	18	36.73	43.72
2	삼정KPMG	2,327,754	15.39	13	26.53	20.96
3	딜로이트 안진	2,453,284	16.22	5	10.20	13.21
4	언스트앤영 한영	2,385,225	15.77	4	8.16	11.96
5	성현 회계법인	75,000	0.50	1	2.04	1.27
6	회계법인 배율	37,300	0.25	1	2.04	1.14
6	회계법인 가현	37,300	0.25	1	2.04	1.14
8	한미 회계법인	35,600	0.24	1	2.04	1.14
9	현대 회계법인	30,000	0.20	1	2.04	1.12
10	회계법인 새길	24,861	0.16	1	2.04	1.10
11	정동회계법인	23,500	0.16	1	2.04	1.10
12	선일회계법인	16,000	0.11	1	2.04	1.07
13	한울 회계법인	12,001	0.08	1	2.04	1.06
계		15,128,163	100.00	49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금융 & 회계 동시 자문 경우 회계실적은 금융실적으로 대체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6,893,815	30.03	18	15.25	22.64
2	법무법인 광장	2,536,114	11.05	18	15.25	13.15
3	법무법인 태평양	3,490,227	15.21	10	8.47	11.84
4	법무법인 율촌	2,964,946	12.92	8	6.78	9.85
5	Sullivan&Cromewell	3,200,000	13.94	1	0.85	7.39
6	법무법인 세종	764,714	3.33	13	11.02	7.17
7	KL파트너스	992,660	4.32	8	6.78	5.55
8	법무법인 화우	294,800	1.28	8	6.78	4.03
9	법무법인 기현	831,900	3.62	3	2.54	3.08
10	법무법인 세움	50,000	0.22	6	5.08	2.65
11	법무법인 별	105,500	0.46	5	4.24	2.35
12	법무법인 비트	167,204	0.73	4	3.39	2.06
13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135,001	0.59	3	2.54	1.57
14	법무법인 바른	170,000	0.74	2	1.69	1.22
15	법무법인 지평	114,745	0.50	2	1.69	1.10
16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91,245	0.40	1	0.85	0.62
17	법무법인 양헌	45,000	0.20	1	0.85	0.52
18	법무법인 청담	23,500	0.10	1	0.85	0.47
19	법무법인 선명	20,000	0.09	1	0.85	0.47
20	법무법인 삼율	15,000	0.07	1	0.85	0.46
21	법무법인 지안	14,500	0.06	1	0.85	0.46
22	법무법인 해원	13,050	0.06	1	0.85	0.45
23	법무법인 디라이트	11,200	0.05	1	0.85	0.45
24	법무법인 원	9,160	0.04	1	0.85	0.44
계		22,954,280	100.00	118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법무법인 광장	4,340,080	21.01	21	21.00	21.01
2	김 · 장 법률사무소	3,995,470	19.34	12	12.00	15.67
3	법무법인 태평양	2,233,200	10.81	9	9.00	9.91
4	법무법인 세종	561,509	2.72	8	8.00	5.36
5	Latham & Watkins	1,930,448	9.35	1	1.00	5.17
6	Simpson Thacher & Bartlett	1,635,985	7.92	1	1.00	4.46
6	Goodwin Procter	1,635,985	7.92	1	1.00	4.46
8	KL파트너스	358,000	1.73	7	7.00	4.37
9	법무법인 화우	536,000	2.59	6	6.00	4.30
10	법무법인 세움	50,144	0.24	6	6.00	3.12
11	법무법인 비트	183,204	0.89	5	5.00	2.94
12	Sullivan&Cromewell	965,224	4.67	1	1.00	2.84
13	법무법인 기현	680,400	3.29	2	2.00	2.65
14	법무법인 율촌	244,223	1.18	4	4.00	2.59
15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178,001	0.86	4	4.00	2.43
16	Kirkland & Ellis LPP	711,113	3.44	1	1.00	2.22
17	법무법인 별	19,501	0.09	3	3.00	1.55
18	법무법인 바른	195,000	0.94	2	2.00	1.47
19	법무법인 디라이트	91,200	0.44	2	2.00	1.22
20	법무법인 양헌	45,000	0.22	1	1.00	0.61
21	법무법인 지평	23,500	0.11	1	1.00	0.56
21	법무법인 청담	23,500	0.11	1	1.00	0.56
23	법무법인 선명	20,000	0.10	1	1.00	0.55
계		20,656,686	100.00	100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 공동 자문의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자문회사 수로 나눠 반영

2021년도 1분기 합병 · 조인트벤처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삼성증권	7,725,544	97.29	2
2	삼일PwC	105,513	1.33	2
3	대신증권	73,198	0.92	1
4	NH투자증권	36,798	0.46	1
계		7,941,052	100.00	6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삼일PwC	36,798	50.00	1
1	NH투자증권	36,798	50.00	1
계		73,596	100.00	2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230,489	100.00	4	100.00	100.00
계		230,489	100.00	4	100.00	100.00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일PwC	88,577	100.00	2	100.00	100.00
계		88,577	100.00	2	100.00	100.00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14,854,689	84.12	6	54.55	69.33
2	법무법인 세종	2,747,374	15.56	2	18.18	16.87
3	법무법인 광장	42,395	0.24	1	9.09	4.67
4	법무법인 율촌	14,980	0.08	1	9.09	4.59
5	법무법인 태평양	0	0	1	9.09	4.55
계		17,659,439	100.00	11	100.00	100.00

* 건수-금액 가중평균으로 실적집계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법무법인 세종	3,364,603	60.36	2	22.22	41.29
2	김 · 장 법률사무소	822,708	14.76	3	33.33	24.05
3	법무법인 기현	1,210,965	21.72	2	22.22	21.97
4	법무법인 광장	161,277	2.89	1	11.11	7.00
5	법무법인 율촌	14,980	0.27	1	11.11	5.69
계		5,574,534	100.00	9	100.00	100.00

2021년 1분기 M&A SOC · 부동산 자문

금융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1	삼일PwC	31,000	100.00	1
계		31,000	100.00	1

금융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	-	-	-	-
계		-	-	-

회계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정KPMG	750,000	96.03	2	66.67	81.35
2	삼일PwC	31,000	3.97	1	33.33	18.65
계		781,000	100.00	3	100.00	100.00

회계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삼정KPMG	750,000	97.21	2	66.67	81.94
2	선일회계법인	21,500	2.79	1	33.33	18.06
계		771,500	100.00	3	100.00	100.00

법률
Complet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법무법인 광장	701,609	25.19	3	20.00	22.59
2	김 · 장 법률사무소	515,793	18.52	4	26.67	22.59
3	법무법인 세종	459,600	16.50	4	26.67	21.58
4	법무법인 지평	488,355	17.53	3	20.00	18.77
5	법무법인 기현	620,000	22.26	1	6.67	14.46
계		2,785,357	100.00	15	100.00	100.00

법률
Announced

순위	자문사	금액(백만)	금액점유율(%)	건수	건수점유율(%)	조정점유율(%)
1	김 · 장 법률사무소	922,895	33.39	6	40.00	36.69
2	법무법인 지평	575,355	20.81	4	26.67	23.74
3	법무법인 기현	620,000	22.43	1	6.67	14.55
4	법무법인 광장	394,609	14.27	2	13.33	13.80
5	법무법인 세종	251,500	9.10	2	13.33	11.22
계		2,764,359	100.00	15	100.00	100.00

Fees

2021년 1분기 ECM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미래에셋증권	19,708	13	20.37
2	삼성증권	14,004	7	14.47
3	KB증권	12,074	11	12.48
4	한국투자증권	11,521	12	11.91
5	NH투자증권	9,338	5	9.65
6	하나금융투자	6,142	7	6.35
7	키움증권	4,910	4	5.07
8	대신증권	4,561	5	4.71
9	유진투자증권	2,789	5	2.88
10	유안타증권	2,025	3	2.09
11	DB금융투자	1,975	3	2.04
12	IBK투자증권	1,774	3	1.83
13	신영증권	1,638	4	1.69
14	신한금융투자	1,504	5	1.55
15	SK증권	1,405	2	1.45
16	노무라	750	1	0.78
17	한화투자증권	350	2	0.36
18	하이투자증권	300	1	0.31
총합계		96,766	93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ECM 딜(IPO, 유상증자, ELB)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블록딜 제외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2021년 1분기 기업공개(IPO)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미래에셋증권	17,684	10	27.64
2	삼성증권	12,987	5	20.30
3	한국투자증권	6,447	7	10.08
4	하나금융투자	5,938	5	9.28
5	NH투자증권	4,416	1	6.90
6	키움증권	3,593	3	5.62
7	대신증권	3,334	3	5.21
8	KB증권	2,104	3	3.29
9	유안타증권	1,875	2	2.93
10	신영증권	1,438	2	2.25
11	IBK투자증권	1,324	2	2.07
12	DB금융투자	1,098	2	1.72
13	SK증권	955	1	1.49
14	신한금융투자	777	3	1.21
총합계		63,968	49	100.00

* 주관사가 기업공개(IPO)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 후 실제 지급된 수수료만 반영

2021년 1분기 유상증자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9,715	7	30.03
2	한국투자증권	5,074	5	15.69
3	NH투자증권	4,922	4	15.22
4	유진투자증권	2,594	4	8.02
5	미래에셋증권	2,024	3	6.26
6	키움증권	1,317	1	4.07
7	대신증권	1,227	2	3.79
8	삼성증권	1,017	2	3.14
9	DB금융투자	878	1	2.71
10	노무라	750	1	2.32
11	신한금융투자	728	2	2.25
12	IBK투자증권	450	1	1.39
12	SK증권	450	1	1.39
14	한화투자증권	350	2	1.08
15	하이투자증권	300	1	0.93
16	하나금융투자	204	2	0.63
17	신영증권	200	2	0.62
18	유안타증권	150	1	0.46
총합계		32,348	42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유상증자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2021년 1분기 ELB 수수료 순위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건수	점유율(%)
1	KB증권	255	1	56.67
2	유진투자증권	195	1	43.33
총합계		450	2	100.00

* 주관사 혹은 모집주선사가 주식연계증권(ELB) 공모 발행을 진행하며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이 기준

2021년 DCM 전체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점유율(%)
1	KB증권	9,892	14.86
2	NH투자증권	7,815	11.74
3	한국투자증권	7,378	11.09
4	SK증권	6,471	9.72
5	신한금융투자	4,321	6.49
6	미래에셋증권	3,077	4.62
7	키움증권	2,856	4.29
8	한양증권	2,563	3.85
9	이베스트투자증권	2,041	3.07
10	현대차증권	1,691	2.54
11	하이투자증권	1,551	2.33
12	하나금융투자	1,478	2.22
13	한화투자증권	1,465	2.20
14	부국증권	1,434	2.16
15	삼성증권	1,338	2.01
16	교보증권	1,329	2.00
17	DB금융투자	1,301	1.96
18	신영증권	1,065	1.60
19	케이알투자증권	1,041	1.56
20	유진투자증권	787	1.18
21	BNK투자증권	778	1.17
22	대신증권	768	1.15
23	흥국증권	632	0.95
24	유안타증권	598	0.90
25	KTB투자증권	593	0.89
26	메리츠증권	552	0.83
27	IBK투자증권	421	0.63
2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46	0.52
29	케이프투자증권	238	0.36
30	DS투자증권	198	0.30
31	한국산업은행	190	0.29
32	우리종합금융	160	0.24
33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59	0.24
34	카카오페이증권	21	0.03
총합계		66,549	100.00

* 주관사가 DCM딜(SB,FB,ABS)공모 발행을 진행하여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1년 DCM 대표주관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점유율(%)
1	KB증권	1,136	35.46
2	NH투자증권	805	25.12
3	한국투자증권	527	16.44
4	미래에셋증권	253	7.91
5	신한금융투자	250	7.79
6	키움증권	116	3.62
7	삼성증권	35	1.11
8	신영증권	30	0.94
9	한화투자증권	25	0.78
10	DB금융투자	15	0.47
11	SK증권	7	0.21
12	하이투자증권	5	0.16
총합계		3,203	100.00

* 대표주관사가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1년 1분기 국내채권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KB증권	8,757	16.10	13.82
2	NH투자증권	7,010	15.49	11.07
3	한국투자증권	6,851	14.85	10.82
4	SK증권	6,464	17.81	10.20
5	신한금융투자	4,071	17.64	6.43
6	미래에셋증권	2,823	14.78	4.46
7	키움증권	2,740	16.88	4.33
8	한양증권	2,563	14.28	4.05
9	이베스트투자증권	2,041	12.60	3.22
10	현대차증권	1,691	15.23	2.67
11	하이투자증권	1,546	17.77	2.44
12	하나금융투자	1,478	15.93	2.33
13	한화투자증권	1,440	14.97	2.27
14	부국증권	1,434	14.71	2.26
15	교보증권	1,329	11.98	2.10
16	삼성증권	1,302	19.02	2.06
17	DB금융투자	1,286	16.13	2.03
18	케이알투자증권	1,041	30.34	1.64
19	신영증권	1,035	12.86	1.63
20	유진투자증권	787	12.20	1.24
21	BNK투자증권	778	11.08	1.23
22	대신증권	768	20.93	1.21
23	흥국증권	632	14.10	1.00
24	유안타증권	598	14.22	0.94
25	KTB투자증권	593	11.00	0.94
26	메리츠증권	552	9.83	0.87
27	IBK투자증권	421	12.77	0.66
28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46	14.03	0.55
29	케이프투자증권	238	11.35	0.38
30	DS투자증권	198	14.67	0.31
31	한국산업은행	190	11.52	0.30
32	우리종합금융	160	16.00	0.25
33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59	11.39	0.25
34	카카오페이증권	21	7.00	0.03
총합계		63,346	15.42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1년 1분기 일반 회사채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원)	평균 bp	점유율(%)
1	KB증권	6,893	19.66	17.14
2	NH투자증권	5,797	19.51	14.42
3	SK증권	5,134	23.13	12.77
4	한국투자증권	5,030	19.08	12.51
5	신한금융투자	3,536	19.64	8.79
6	키움증권	2,142	21.67	5.33
7	미래에셋증권	1,710	19.26	4.25
8	현대차증권	1,328	17.58	3.30
9	삼성증권	1,266	19.41	3.15
10	하나금융투자	1,255	17.47	3.12
11	하이투자증권	1,019	20.80	2.53
12	한화투자증권	915	20.55	2.27
13	대신증권	695	23.38	1.73
14	DB금융투자	686	20.33	1.71
15	한양증권	681	16.01	1.69
16	신영증권	558	18.01	1.39
17	IBK투자증권	226	16.38	0.56
18	유안타증권	221	21.00	0.55
19	교보증권	200	14.29	0.50
20	BNK투자증권	175	14.58	0.44
21	메리츠증권	165	13.75	0.41
22	이베스트투자증권	145	19.33	0.36
23	유진투자증권	129	19.85	0.32
24	부국증권	90	13.85	0.22
25	우리종합금융	60	20.00	0.15
26	한국산업은행	50	20.00	0.12
27	KTB투자증권	40	10.00	0.10
28	흥국증권	28	9.33	0.07
29	케이알투자증권	20	20.00	0.05
29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0	20.00	0.05
총합계		40,209	19.70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1년 1분기 여전채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평균bp	점유율(%)
1	이베스트투자증권	1,896	12.27	9.13
2	한양증권	1,882	13.74	9.06
3	한국투자증권	1,664	9.76	8.01
4	부국증권	1,229	14.81	5.92
5	NH투자증권	1,169	7.74	5.63
6	교보증권	1,129	11.64	5.44
7	KB증권	1,128	10.04	5.43
8	미래에셋증권	1,044	10.95	5.03
9	케이알투자증권	1,021	30.65	4.92
10	SK증권	722	9.02	3.47
11	유진투자증권	658	11.34	3.17
12	흥국증권	604	14.45	2.91
13	BNK투자증권	603	10.36	2.90
14	DB금융투자	600	13.04	2.89
15	키움증권	599	9.43	2.88
16	KTB투자증권	553	11.08	2.66
17	신영증권	478	9.65	2.30
18	하이투자증권	457	14.74	2.20
19	신한금융투자	399	13.07	1.92
20	메리츠증권	380	10.27	1.83
21	한화투자증권	375	8.93	1.81
22	유안타증권	371	15.19	1.79
23	코리아에셋투자증권	319	19.35	1.54
24	현대차증권	318	10.26	1.53
25	케이프투자증권	238	11.35	1.15
26	DS투자증권	198	14.67	0.95
27	IBK투자증권	188	15.67	0.91
28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159	11.39	0.77
29	하나금융투자	154	10.96	0.74
30	우리종합금융	100	14.29	0.48
31	대신증권	74	10.54	0.36
32	삼성증권	36	11.22	0.17
33	카카오페이증권	21	7.00	0.10
총합계		20,765	11.61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1년 1분기 ABS 인수 수수료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평균bp	점유율(%)
1	KB증권	736	9.08	31.01
2	SK증권	609	10.00	25.65
3	한국투자증권	157	5.74	6.62
4	한화투자증권	150	15.46	6.32
5	한국산업은행	140	10.00	5.90
6	신한금융투자	137	6.80	5.78
7	부국증권	115	14.38	4.85
8	미래에셋증권	70	10.00	2.95
8	하이투자증권	70	10.00	2.95
8	하나금융투자	70	10.00	2.95
11	NH투자증권	45	10.00	1.90
11	현대차증권	45	10.00	1.90
13	메리츠증권	7	1.00	0.30
13	유안타증권	7	1.00	0.30
13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	1.00	0.30
13	IBK투자증권	7	1.00	0.30
총합계		2,372	8.48	100.00

* 채권 인수사가 인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합산
* 수수료는 발행실적보고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